

V. 의열투쟁의 전개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V. 의열투쟁의 전개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의열투쟁’은¹⁾ 의사와 열사라는 역사적 인물형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사적 기개로써 의로운 일의 실행에 용맹과감하게 나섰음을 강조하면 의사라는 호칭이 붙고, 대의를 좇아서 죽음의 길로 감연히 뛰어들었음을 강조하면 열사라는 호칭이 붙는다. 전자의 행위가 대체로 무기를 가지고서 대적거사를 벌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면, 후자의 행위는 맨손의 항거나 자결로써 충절과 의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小我를 버리고 義를 취하며 자기희생을 마다않거나 자진해서 택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²⁾ 그러므로 ‘의열’이란 生死不顧의 정신이 낳은 행동의 의로움과 그 행위에 뒤따르는 희생의 장렬함을 함께 기리는 뜻을 담은 용어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의 의열행위 양식은 일제 강점기 훨씬 이전에 생성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항쟁이나 論介의 행동이 다 그런 속성의 것이었다. 갑오년(1894) 이래의 반일 의병투쟁도 그 계선에 놓이면서 의열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한말에 와서 크게 꽃을 피웠다. <을사늑약>의 체결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후기 의병진들, 국운의 쇠퇴를 통탄하며 일본의 침략 야욕에 자결로써 항의한 전·현직 관료와 유생 및 군인들, 을사5적과 침략 원흉 및 침략행위 부조자를 암살 응징했던 奇山度·羅喆·吳基鎬·張仁煥·田明雲·安重根·李在明 등 여러 의사들의 행동

1) ‘의열투쟁’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75년에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독립운동사》 제7권으로 《의열투쟁사》를 펴내면서부터였다.

2)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전자의 경우도 ‘열사’로 통칭하고 있다.

이 의열의 전통을 되살린 것이다. 대한제국이 1910년에 일본에 강제 합병되자 많은 재야유생들이 잇따라 자결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선상에서 망국의 절통함을 표한 방식이었다.

강점 이래 10년간의 일제 무단통치가 국토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처럼 만들어 짓누르고 있던 속에서도 여러 비밀결사와 그 성원들의 지하활동을 통하여 항일투쟁의 의지와 동력은 계속 재생산되었다. 특히 친일부호 차단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大韓光復會의 ‘義俠鬪爭’은 한말 의열투쟁의 정신과 방법을 부분적으로 재생·발전시킨 것임과 동시에, 3·1운동 이후의 의열투쟁의 한 원형이자 수원지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면서도 3·1운동 이후의 의열투쟁은 한말의 그것과는 초점과 의미구조가 사뭇 달랐다. 자결로써 의분을 표하는 것과 같은 행위양식이 사라지고, 그 대신 상황변개의 의지가 길게 투영된 공격적 거사로 투쟁의 내용이 거의 채워진다. 다음으로, 단발적·일회적 개인거사의 수준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의 연속적 거사가 하나의 전형으로 자리잡아 투쟁의 지속성을 담보해 간다. 그래서 의열투쟁은 이제 산발적인 항일행동의 단순집합 개념이 아니라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된다.

이리하여 의열투쟁은 개인 또는 집단의 감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뒷받침된 공격적 거사 양식의 독립투쟁이라는 것으로 그 의미가 굳어지게 된다. 의열거사의 규모가 확대되고 수단이 다변화하며 내용이 풍성해지는 추세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의열투쟁의 본격화와 궤를 같이한다. 1920년대 초에 ‘작탄투쟁’이나 ‘암살파괴운동’과 같은 용어가 새로 만들어져 널리 쓰이게 된 것도 그런 맥락에 비추어 조망하고 이해할 수 있다. 3·1운동 직후에 암살파괴운동의 선도자를 자임하며 탄생한 한 단체가 “천하의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³⁾할 것이라 공약하고, 그 ‘정의’와 ‘맹렬’에서 한 자씩 따서 자기의 이름으로 삼음을 언명한 것—어쩌면 역설처럼 느껴질 법한 이 논리연관 짓기도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지, 그저 우연의 소치이거나 혼자만의 억지였던 것은 아니다.

3) 朴泰遠, 《若山과 義烈團》(白楊堂, 1947), 27쪽.

이제 폭력과 정의가 한몸이 될 수 있었던 우리 역사의 한 시기와 여러 국면을 찬찬히 살펴볼 차례이다. 하지만 지면상 개별 사례들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기보다는 전체의 흐름 속에 그것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갈 것이다.

〈金榮範〉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3·1운동은 민족성원 대다수의 식민통치 거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만방에 선양했다는 점에서 분명 그 의의가 컸다. 그러나 일제의 잔혹한 탄압으로 민족독립의 목표는 끝내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다수의 독립운동자와 일반 대중은 비폭력 시위항쟁이 갖는 한계를 절감했고, 폭력수단을 총동원한 지속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일제를 구축하여 독립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만주·노령 쪽의 망명 독립운동자들이 그런 신념을 확고히 다져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독립 성취의 유일한 방도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무장독립운동 단체와 독립군 부대들 조직구성에 박차를 가했으며, 군사활동이 불가능한 지역을 염두에 둔 강력한 폭력투쟁의 방법도 따로 강구되었다.

이런 인식과 사고는 성립 직후의 上海 임시정부 내에도 유입되어, 그에 부응하는 실천적 움직임이 일찌감치 태동했다. 1919년 4월 20일 경에 趙素昂과 鄭元澤이 李東寧·李始榮의 지원으로 상해 공동조계에 폭탄제조 학습소를 비밀리에 설치하여 일단의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한 것이¹⁾ 그 단적인 예이었다. 그것은 앞서 3월에 조소앙이 작성하여 해외 독립운동가 39인의 연명으로 吉林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에서 촉구되었던바 “육탄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이어서 6월에는 “炸彈으로 구국

1) 鄭元澤 著, 洪淳鉦 譯, 《志山外遊日誌》(探求堂, 1983), 195~196쪽.

의 책임을 부담'할 목적의 救國冒險團이 약 40명 인원으로 조직되어, 단원에 대한 폭탄제조법의 교수를 바로 시작하였다.²⁾

그 해 9월에 漢城政府 및 노령 國民議會와의 통합을 거쳐 재편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전보다 훨씬 더 전투적인 방향으로 독립운동 노선의 가닥을 잡아갔다. 전쟁에 의해 일제를 격멸함을 독립 성취의 최상위 전략으로 설정하고, 대일결전의 기회를 맞을 때까지는 각 부문의 민족역량을 증강시켜 가는 '준비' 단계로 삼으며, 이 단계에서는 폭력과 비폭력, 무장과 비무장 수단을 두루 동원하는 복합전술로써 일제에 대항해 가기로 노선 표준을 정한 것이다.³⁾

그러한 항전의 일환으로 일제 요인을 섬멸하고 반민족분자를 응징해 갈 것이라는 결의도 임시정부는 천명하였다. '7可殺' 범주를 설정하여 그 판별기준과 내용을 공표한 일이 그것이다. 임시정부에 의해 지정된 '7가살'의 각 하위범주와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 ① 敵魁 : 조선총독 · 정부총감 등 일제 고관. 한국독립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유력 일인. 한국독립운동과 그 지도자를 誹毀하는 정치가 · 학자 · 신문기자 · 종교가 등 不逞日人. 우리 동포를 학대해 온 일인 헌병 · 경관 등.
- ② 賣國賊 : 한국독립을 반대하고 적의 통치하에 있기를 주장하는 凶賊들.
- ③ 假鬼 : 고등정탐. 혹은 일반형사로서 독립운동의 비밀을 적에게 밀고하거나 지사를 체포하며 동포를 구타하는 醜類들.
- ④ 친일부호 : 자기 재산의 안전을 도모키 위해 적과 통하여 군대와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적국으로 도망친 자. 특히 독립운동에 현금기를 누차 권유함에도 듣지 않거나, 현금을 권유하는 지사를 밀고한 자.
- ⑤ 적의 관리된 자 : 관리된 자로서 독립운동단체의 퇴직권유를 세 번 이상 받고도 改悟할 줄 모르는 자. 독립운동을 비해하거나 국민의 애국심과 용기를 떨어뜨리는 자. 동포를 압박하는 자.
- ⑥ 불량배 : 浮言浪說로써 독립운동을 해치거나 민심을 현혹시킨 자. 독립운동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9(1975), 631쪽.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1976), 162쪽.

3) 金榮範, 〈義烈團의 創立과 초기 路線에 대하여〉(《韓國學報》 69, 一志社, 1992), 180~181쪽.

자를 冒稱하고 애국의연금을 횡령한 자, 변심 또는 慙慙로 임무를 저버린 자, 기밀을 누설하거나 신의를 배반한 자.

- ⑦ 모반자 : 독립운동 종사 중 변절한 자, 私黨을 만들어 정부를 비핵 반항하는 자.

(《獨立新聞》 제43호, 1920년 2월 5일).

동년 5월 경에 공포된 <시정방침>에서도 청년 敢死隊와 炸彈隊를 조직하여 “적괴 및 창귀 격살”과 “영조물 파괴”를 단행할 것을 언명했다시피, 임시 정부는 전담 행동대에 의한 암살·파괴의 작탄투쟁을 독립전쟁 준비단계에서의 유력한 대적방책의 하나로 삼고자 했다. 아울러 그 방책을 실천에 옮길 의지와 의사도 여러 경로로 표명했다.

‘비무장에서 무장으로’라는 독립운동의 새로운 조류는 만주와 극동러시아에서 독립군조직들이 새로 결성되고 정비되어 가는 데서도 역력히 감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독립군 부대들의 병력과 장비는 일본군에 비하면 열세를 면치 못함이 사실이었다. 이에 그러한 약점을 벌충하면서 독립군의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별동조직의 기습공격과 같은 방식으로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항전활동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임시정부의 聯通制 및 交通局 조직과 연관을 맺고서 주로 군자금 수합의 목적으로 1919년 하반기부터 속출한 비밀결사들이 조직체제를 정비하여 무장 또는 준무장 조직으로 전환하거나 새 무장조직이 결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1920년 경부터 강력한 무장행동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이들 무장조직의 활동은 군이나 도 이내의 국지적인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는 만주지역의 무장단체나 상해 임시정부 및 그 외곽단체들과의 연계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건, 5명 전후 인원의 便衣遊擊組나 결사대가 잠행하며 벌이는 일제기관 파괴, 경관과 밀정 사살, 악질 관공리와 친일부호 및 주구 처단, 군자금 수취와 확보 등이 주된 활동내용을 이루었다.

이런 여러 추세가 서로 맞물리는 상황 속에 1920년대 초부터 의열투쟁이 주요 독립운동방략의 하나로 급부상하였다. 결사적 태세로 강도 높은 의열

투쟁을 계속 벌여가면 그것이 낡을 충격-공포 효과에 의해 일체가 결국은 식민지 경영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우선 내세워졌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군사조직에 의한 무력투쟁과 전술적으로 배합되어 전과상승의 큰 효과를 올릴 수가 있으며, 민중직접혁명 방략과 관련해서는 대중봉기를 촉발하게 될 선도적 투쟁양식으로 인식되었다. 소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기동성과 집중성을 최대한 살리며 수행되는 암살과 파괴활동은 군사행동 못지않게 위력적인 성과를 낳는 투쟁방법이 될 것이며, 그런 활동을 통한 비타협적 투지의 지속적인 발현이 일반 민중을 부단히 각성·고동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무장투쟁’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의열투쟁에는 독립군의 군사활동(‘무력투쟁’)과 대비되는 전술적 특징이 있었다. 전자는 비교적 큰 규모의 병력과 장비, 일정한 숙영지 겸 근거지, 조직편제와 지휘체계,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요했다. 이에 반해 의열투쟁은 순전히 개인적인 결의와 준비로써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집단 규모의 비밀결사나 큰 조직체에 속한 하위 별동조직의 독자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 목표물과 행동이 결정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노출될 우려가 큰 근거지의 상비나 조직체계의 완비를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전자와 상이했다. 그리고 의열투쟁의 바로 이런 측면들이 그것을 독립군의 조직과 군사작전의 전개가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시·공간과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채택될 수 있는 최선·최량의 대체투쟁방책으로 여겨지게끔 하였다.

3·1운동 직후부터 의열투쟁의 열기가 급속도로 고조되고 단시일에 본격화 국면을 맞게 된 데는 이런 여러 계기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金榮範〉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1) 3·1운동 직후와 1920년의 의열투쟁

의열투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은 3·1운동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나타났다. 국내 비밀결사 및 무장단체, 상해의 독립운동단체, 만주의 독립군조직과 기타 무장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상호 연계해서 조직적 의열투쟁의 기반을 닦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西間島 방면으로부터 소규모의 편의대·결사대가 국내로 자주 특파되어, 평안남북도 일원의 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 군수 또는 면장 이하의 중·하급 관리와 순사, 지방 밀정, 친일부호 등을 타격대상으로 삼았다. 독립군 특공대가 불시에 압록강을 건너 국경 부근의 군경시설과 관공서를 습격하여, 국경 안쪽으로 깊숙히 잠입한 특파 결사대의 암살 파괴활동이 시작되었다.

3·1운동 이후 의열투쟁사의 첫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먼저 27결사대의 국적섬제 거사계획을 꼽을 수 있다. 고종의 장례일을 기하여 ‘을사 5적’과 ‘정미 7적’(고종이 퇴위토록 강박한 李完用 이하 7대신)을 모두 암살키로 이동녕·이시영·安泰國·李鐸이 결의한 데 따라 서간도에서 구성된 27명의 결사대가 이탁의 인솔로 2월 말에 서울로 잠입했다. 그러나 무기의 서울 도착이 지연되어 국장일인 3월 3일에는 거사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시 기회를 노리며 군자금 수합과 격문 부착 등의 잠행활동을 벌이고 있던 중에 그 행적이 노출되어 대원 23명이 5월 초에 피체되었다.¹⁾

이탁이 어렵게 일경의 검거망을 벗어나 서간도로 귀환한 후, 다시 新興學校 學友團 단원들이 국내 암살폭파거사를 계획하여 1919년 9월에 文相直을 정담요원으로 밀파했고,²⁾ 유하현에서 3월 말에 결성된 大韓獨立團도 10월

1) 《東亞日報》, 1921년 1월 21일·3월 5일.

김용국 외, 《독립운동사》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265~270쪽.

金厚卿, 《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光復出版社, 1984), 927~929쪽.

2) 문상직은 대구에서 암약하다 1920년 2월에 피검되었다(金正明 編, 《朝鮮獨立運

경부터 국내지단 설치 등의 지하공작을 수행할 특과원들을 수차 국내로 들여보냈다.³⁾ 9월 중순에 30명의 암살대가 상해로부터 육로로 파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일제 군경당국이 만주 京奉線의 주요 역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차에 심양역에 막 도착한 객차 안에서 폭탄 8개가 순찰 일경에 발견되기도 했다.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9월 2일에 남대문정거장(지금의 서울역)에서 65세의 노인지사 姜宇奎가 감행한 폭탄거사에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설립된 老人同盟團의 만주 遼河縣 지부장을 맡고 있던 강우규가 조선총독의 경질소식을 접하고는 신임총독을 제거할 결심으로 밀입국한 뒤, 부임길의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막 올라탄 마차를 향해 영국제 수류탄 한 발을 던진 것이다. 척탄이 빗나가 떨어져서 총독 폭살에는 실패했지만,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를 비롯한 총독부 요인과 관리 등 34명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⁵⁾

강우규의 투탄의거는 일제가 ‘문화정치’라는 미명으로 식민지 지배의 장기화를 획책함에 대한 준열한 경고였음과 동시에, 3·1운동 이후의 독립투쟁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전범 제시에 의해 비상한 자극과 깨우침을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강우규의 의거는, 국내 폭탄거사의 효시이기도 했지만, 1920년대의열투쟁의 실질적인 기폭제였다. 실제로 강우규 의거 이후 국내와 만주, 상해에서 의열지향적 비밀결사와 특종단체들이 속속 결성되기 시작했다.

우선 국내에서는 10월에 韓民會가 결성되었는데, “독립군의 鮮內 진입에 앞서 관공리와 친일 鮮人을 암살하며, 철도·전신·전화 및 관공서 건물과 공장 등을 파괴할 것”을 활동목표의 하나로 적시했고, 그에 걸맞게 암살부와 進滅部도 따로 두었다. 기독교 장로파 신도·면서기·교사 등의 회원으로 구

動》I—分冊, 東京:原書房, 1967, 302~303쪽; 朝鮮總督府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934, 266~267쪽).

3)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大韓民國公報處, 1949), 57~58쪽.

4)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II(東京:原書房, 1967), 403쪽.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1(1976), 576~621쪽. 현장을 빠져나가 재거사의 기회를 노리던 강우규는 警部 金泰錫의 집요한 추적으로 피체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그 해 11월에 순국하였다.

성된 한민회는 1920년 9월에 평남 영원군 온화면사무소를 습격한 것이 단서가 되어 조직이 발각되고 회원 전원이 피체되었다.⁶⁾

1919년 늦가을에 대한독립단이 특과한 金琫奎·朴承燁·李元甫도 평남 덕천군과 맹산군 경계에 위치한 仙遊峰의 속칭 ‘범굴’ 속에 국내 거점을 구축하고 영원·덕천·맹산 3군의 유력자들을 포섭하여 1920년 초까지 군별 지단의 조직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대한독립단 국내 총지휘소(나중에 ‘虎窟獨立團’으로 통칭됨)는 3개 지단 300여 명의 단원을 거느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후 1년여 동안 盡命團·盡忠團·義烈團·血盟團 등의 명칭을 번갈아 써가며 성동격서의 게릴라전법으로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습격·파괴와 무기 탈취, 일경 사살, 공금수송대 습격 후 거금 탈취, 친일부호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호굴독립단은 경찰의 끈질긴 탐문과 추적으로 1921년 5월에 아지트가 발각되고 단원 90명이 체포됨으로써 조직이 와해되었다.⁷⁾

만주 길림에서는 柳東悅·黃尙奎 등 朝鮮獨立軍政司 간부진의 전략구상과 지도에 의해 1919년 6월경부터 동지 규합과 폭탄제조법 학습 등의 준비작업을 해온 金元鳳 등 열혈청년 13명이 11월 10일에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그와 더불어 창립단원들은 국내 적기관 및 주요 시설물의 폭파와 총독 등 고관 암살을 위한 대형 특공거사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상해에서 입수한 폭탄 13개를 밀송하여 경남 밀양과 진영에 나누어 숨겼고, 거사행동대가 될 단원들이 입국하여 사전 경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정부 김태석에게 탐지됨으로써 입국 단원 거의 전원이 1920년 6월 중·하순에 피검되어, 의열단의 첫 투탄의거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검거망 밖에 있던 김원봉 등 다른 단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거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그 해 9월에 朴載燾이 부산경찰서 투탄의거를, 12월에는 崔壽鳳이 밀양경찰서 투탄 의거를 감행하였다. 두 거사는 각각 서장실 폭파 및 서장 하시모토(橋本秀坪) 폭살과 청사 일부 파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6)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朝鮮 三(東京: みすず書房, 1977), 536~537쪽.

7) 《東亞日報》, 1920년 6월 4·15·17·26일, 10월 21·28일, 11월 23일.

김용국 외, 앞의 책, 391~401쪽.

상해에서도 임시정부 외곽에서 여러 단체들이 결성·조직되어 가는 가운데 구국모험단과 성격을 같이 하는 의열투쟁 조직들이 나타났다. 그 중 1920년 1월에 孫貞道·金九 등의 발기로 결성된 義勇團은 “일본 요로의 대관 및 친일 조선인을 살육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함에 의하여 조국독립을 기한다”는 목적 아래 탐정대와 모험대를 설치했으며, 국내 각도에 지단과, 府·郡에 분단을 조직키로 하여 총무 金錫璜을 특파하였다.⁸⁾

3월에 평양으로 잠입한 김석황은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망 겸 지원조직의 하나인 평양교통국 책임자 金昌彬과 협의하며 동지를 규합하고, 서울·평양·평안도·황해도 등 여러 곳에 의용단 지단과 분단을 조직하였다. 상해로 돌아간 김석황은 구국모험단이 제조한 폭탄 12개를 각지 지단으로 보내고, 중국 安東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상해와 국내간 연락 중계소 겸 거사지휘소로 삼았다.⁹⁾

이처럼 서간도-국내, 상해-국내, 남만주-상해의 2각 연계에 의한 조직적 의열투쟁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것과 보조를 같이 하여 서북지방에서는 1920년 봄에도 의열지향적 무장단체와 비밀결사들이 잇따라 조직되고 저마다 활동을 개시하였다.

먼저 3월 경에 서간도의 大韓光復軍司令部 제4영장 崔時興이 구한국군 출신 위주로 40여 명을 규합하여 평북 의주군 천마산에서 天摩山隊를 건립했다. 창건 직후부터 천마산대는 의주·삭주·구성·창성군 일대에서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습격 파괴와 일경 및 친일분자 처단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¹⁰⁾ 또한 3월 초에 평북 의주군 월화면에서는 만주 관전현을 다녀온 金東植이 大朝鮮靑年決死隊를 조직하여 군자금 수취 활동에 주력했는데, 5월 하순에 총기 획득을 계기로 조직을 확대시켜 大朝鮮獨立普合團으로 개칭하고 무장활동에 돌입하였다.¹¹⁾

8)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 分冊, 451~455쪽.

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512~513쪽. 이상은 김석황이 1920년 9월에 만주 奉天에서 피체되어 드러난 사실들이다.

10) 朴杰淳, 〈1920年代初 國內 武裝鬭爭團體의 活動과 推移〉(《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 287~292쪽.

11) 朴杰淳, 위의 글, 309쪽.

4월에는 황해도 사리원에서 주민 중심의 비밀결사인 獨立團 決死隊가 조직되어, 임시정부군의 국내진입시 일본군과 교전하며 길 안내를 할 것, 사직 권고에 불응하는 관공리를 처단할 것 등을 계획하고 활동에 들어갔다.¹²⁾ 5월에는 평북 구성에서 大韓民族自決國民會가 조직되어, 연통제 조직인 平北督辦部와 기맥상통으로 경찰관습격대 및 암살단 보호·원조, 총기 소재 및 친일자 조사 등의 목적 아래 활동을 개시하였다.¹³⁾ 평남 진남포에서도 5월 경에 임시정부 운동기관의 하나로 國民會가 결성되어, 군사금 수합과 관공리 살해, 관청 파괴 등의 무력투쟁 방침을 세웠다.¹⁴⁾

이들 국내 자생단체는 활동 개시 후 얼마 못가서 일경의 정보망에 포착되어 조직이 파괴되었지만,¹⁵⁾ 그럼에도 서북지방에서는 무장대의 지방관서 습격 및 파괴·방화와 관공리·친일유지 암살사건이 1919년 말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의열·준의열 투쟁의 기세가 고조되고 있음을 웅변해 주는 사건들이었는데,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19년 12월 23일, 평북 용천군 읍동면의 친일유지 崔時傑이 대한독립단 국내특과원 白雲翰·李明瑞 등 4인에 의해 거소에서 사살됨(金厚卿, 《大韓獨立運動功勳史》, 光復出版社, 1984, 595쪽).
- ② 1920년 3월 15일, 평북 선천군 태산면사무소가 대한독립단 국내특과원 3명에 피습되고 면장 金炳駿과 서기 金股基가 총살됨(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朝鮮三, 東京: みすず書房, 1977, 419·430쪽;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大韓民國公報處, 1949, 56쪽).
- ③ 3월 15일, 평북 의주경찰서의 순사 金明翼이 대한독립단원에 의해 거소에서 총살됨(위와 같음).

12)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539~540쪽.

13)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495~496쪽.

14)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474~475쪽.

15) 독립단 결사대는 1920년 11월에, 대한민족자결국민회는 동년 9월에, 진남포 국민회는 동년 7월에, 일경의 검거망 가동으로 조직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천마산대는 일군의 추적과 탄압으로 본거지를 수차 옮겨다니면서도 光復軍總營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으며 꾸준히 활동을 전개였고, 1922년 남만주의 독립군단 통합으로 統義府가 발족하자 그 의용군 제3중대로 편입되었다(朴杰淳, 앞의 글, 297~299쪽).

- ④ 3월 20일, 의주군 고관면 동상동의 전 신의주경찰서 형사 洪世憲의 집에 무장대원 2명이 들이닥쳐 권총으로 저격, 중상을 입힘(姜德相 編, 위의 책, 422~423쪽;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I - 分冊, 309쪽).
- ⑤ 5월 7일, 의주군 고관면 서하동의 친일부호 白成植이 무장대 3명에 의해 총살됨(姜德相 編, 위의 책, 439쪽).
- ⑥ 6월 4일, 평북 삭주군 구곡면 신안동의 경찰관주재소를 호교독립단원 8, 9명이 습격하여 순사 洪明根을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순사 吳泰鳳을 사살함(金正明 編, 앞의 책, 434쪽).
- ⑦ 6월 8일, 평북 벽동경찰서 삼서주재소의 악질 순사 文治朝가 광복군총영 암살대원에 의해 거소에서 사살됨(蔡根植, 앞의 책, 62쪽).
- ⑧ 6월 10일, 평북 창성군 대창면사무소에 천마산대 대원 3명이 내습하여 면장 姜昌憲을 사살함(姜德相 編, 앞의 책, 460쪽; 蔡根植, 위의 책, 65쪽).
- ⑨ 6월 25일, 벽동군 학회면 학하리의 경찰관주재소에 광복군총영 대원 8명이 내습하여 일인 순사 1명을 사살하고 주재소와 면사무소에 방화하여 전소시킴(姜德相 編, 위의 책, 469쪽; 蔡根植, 위의 책, 62쪽).
- ⑩ 7월 2일, 의주군 고령작면의 洪應濂이 대원 밀고 혐의로 천마산대에 처단됨(《東亞日報》, 1924년 11월 12일).
- ⑪ 7월 3일, 의주군 고령작면 대하동의 吳王漣이 무장대 6명에 의해 총살됨(姜德相 編, 앞의 책, 473쪽).
- ⑫ 7월 8일, 의주군 월하면 화하동의 친일파 崔學貞이 천마산대에 의해 총살됨(《東亞日報》, 1924년 11월 12일).
- ⑬ 7월 29일, 삭주군 외남면사무소를 신원불명자 2명이 습격하여 서류와 비품들을 소각한 후 만석동 구장 崔之鉉을 찾아가 사살함(姜德相 編, 앞의 책, 487쪽).
- ⑭ 8월 15일, 황해도 은율군에서 군수 崔丙赫과 부호 高學倫이 九月山隊 대원 10명에 의해 거소에서 사살됨(姜德相 編, 위의 책, 492·498~500·511쪽). 구월산대는 대한독립단이 특파한 이명서 등의 암살단이 황해도 송화군 구월산에서 결성한 무장단체로,¹⁶⁾ 그 후 10월 말에 대원 다수가 일경에 피체되기까지 순사 저격, 밀정 척살, 군자금 징수 등의 활동을 계속 벌여나갔다(姜德相 編, 위의 책, 558쪽).
- ⑮ 9월 1일, 평북 후창군수 桂膺奎가 西路軍政署의 특파 암살단원 李昌德과 李宗植에 의해 거소에서 총살됨.¹⁷⁾ 그 후 이창택이 金成辰의 밀고로 피체, 사

16)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文化社, 1967), 251쪽.

형되자 이종식 등 다른 단원 6명이 10월 3일에 김성진을 사살함(김용국 외, 《獨立運動史》 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390쪽).

- ①⑥ 9월 10일, 의주군 옥상면장 金麟書와 옥상면 상목동의 손꼽히는 친일자 李俊炯이 무장대 4명에 의해 총살됨(姜德相 編, 앞의 책, 501쪽)
- ①⑦ 9월 16일, 평북 선천군 산면 용경동의 金洛範이 군자금 제공에 불응하여 피살됨(위와 같음).
- ①⑧ 9월 26일에 평북 철산군 서림면 양책주재소 순사 宋龍範이, 9월 29일에 의주군 비현면의 친일파 張某와 순사 文致武가 보합단원에 사살됨(姜德相 編, 위의 책, 507~508·529~530쪽).

이상과 같은 습격·척살 사건들로 서북지방의 일제 통치기관은 치명타를 입었고, 친일 협력자들의 행동은 크게 위축·제어되었다. 평북 일원에서는 관공리와 친일분자들이 경찰의 보호 없이는 바깥출입을 하지 못했고, 여러 군에서 면장과 면서기가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면사무소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조선인 형사 중에도 사직자가 나오고 부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일도 속출했다.¹⁸⁾

서북 변경지대를 중심으로 무장대 의열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과 지방도시에서는 대규모 투탄거사 계획이 1920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수차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는 8, 9월에 집중적으로 실행되어 대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먼저, 유하현 대황구의 大韓獨立臨時軍政府 특과원 李根洙·康聲利 등이 1920년 3월 초에 평양으로 들어와 군자금 수취와 관청 파괴, 관공리 암살을 계획하고 다이너마이트를 입수해 폭탄을 제조하다가 5월에 피검되었다.¹⁹⁾ 대구에서는 조선인 관공리 습격을 밀의하고 폭탄을 손에 넣으려던 농민 梁韓緯 등 여러 명이 6월 하순에 경찰에 체포되었다.²⁰⁾ 이어서 7월 말에 의열

17)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502쪽.

宋相壽, 《騎驢隨筆》(國史編纂委員會, 1971), 296~297쪽.

18)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一分冊, 1967, 319~320쪽.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70, 618~619쪽.
《東亞日報》, 1920년 8월 18일.

1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447쪽.

20) 朝鮮總督府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269~270쪽.

단의 ‘밀양폭탄사건’ 적발 및 수사 결과가 상세히 보도되어 그 대담한 거사 계획이 사람들을 경악시켰고, 9월 14일에 의열단원 박재혁의 부산의거가 있었다.

이에 앞서 5월 초에 미국 상·하 양원 의원단 42명이 8월에 극동지방을 시찰할 때 한반도를 방문한다는 것이 보도되어 국내외 의열단체와 지사들이 매우 고무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회에 “독립에 대한 조선민족의 대결심을 내보임과 함께 민심을 격동시켜 독립 실현을 촉진시키고자”²¹⁾ 대대적인 폭탄거사를 실행하려는 계획이 크게 두 갈래로 준비되었다. 한 갈래는 옛 광복단 계열 운동자들의 거사계획이었고, 다른 한 갈래는 서간도의 광복군총영과 상해 의용단 국내 지단과의 합작거사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전자는 실행에 실패했고 후자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전자의 거사계획은 광복단-대한광복회원이었다가 상해로 망명해 있던 韓焄이 임시정부의 李東輝·이시영·申翼熙 등으로부터 폭탄 10개와 권총 40정을 제공받아 광복단 결사대장을 자처하고 1920년 3월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입경 후 8월 10일에 北路軍政署 특과원 金東淳과의 제휴로 暗殺團을 조직한 옛 동지 金相玉을 만나 같이 행동할 것을 약정했다. 양인은 미국 의원단의 입경 예정일인 8월 24일을 기하여 출영 일본인 고관들을 암살하는 등의 일대 거사를 벌이기로 합의하고 극비리에 준비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8월 23일에 특별경계령을 내리고서 벌인 일경의 예비검속에 걸려 한훈과 다수 동지들이 피체됨으로써 거사는 실행되지 못하였다.²²⁾

후자의 거사계획은 국내 암살과괴공작의 총지휘 임무를 수행토록 대한광복군사령부 예하의 특별기관으로 1920년 6월에 설치된 光復軍總營(영장 吳東振)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대원 13명이 3개의 결사대로 나뉘어 국내로 밀파되었다.

21)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498쪽.

2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06~111쪽.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502~505쪽.

서울거사 임무를 부여받은 결사대 제1지대(金榮哲·金聖澤·金最明)는 포목상으로 위장하고 남하하여 서울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도중에 그들은 친일주구로 악명 높은 평북 慈城郡守와 황해도 長淵郡守를 사살 처단하였다. 3인 대원은 총독부·서울역·종로경찰서를 폭파하려 했으나, 8월 21일 회식장소를 급습한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²³⁾

평양거사의 임무를 부여받은 제2지대 5명은 평남 안주에서 검문하는 일인 경부를 사살한 후 평양 시내로의 잠입에 성공했다. 서로 임무를 분담한 뒤에 그들은 8월 3일 밤에 일제히 거사를 단행하였다. 文一民·禹德善·安敬信이 평남경찰부(평남 제3부라고도 함)에 던진 폭탄은 그대로 폭발하여 청사를 대파시켰다. 그러나 張德震과 朴泰烈이 평양경찰서에 던진 폭탄은 도화선이 빗물에 젖어 불발하였다.²⁴⁾ 평양거사에는 의용단 평양지단 단원들도 동참하여 투탄행동에 같이 나섰는데, 呂行烈과 表永俊이 평양부청에 던진 폭탄은 불발했으나 金禮鎭과 金孝錄이 평남도청에 던진 폭탄은 신청사 일부를 파괴시켰다.²⁵⁾

결사대 제3지대의 평북 선천 방면 특과원 3인(林龍日·李學弼·金應植)은 만주 본부로부터의 폭탄 반입이 지연됨으로써 8월 24일의 선천역·선천경찰서 투탄계획을 실행치 못하였다. 뒤늦게 폭탄을 수령한 후 9월 1일 밤에 그들은 선천군청 지적도 창고에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이었고, 현지에서 행동대원으로 포섭된 학생 朴治毅가 선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청사 일부를 파괴시키고 격문과 경고문을 살포했다.²⁶⁾ 제3지대의 신의주 방면 특과원인 李振武와 鄭仁福은 8월 15일에 신의주역에 투탄하여 대합실을 파괴했다.²⁷⁾

23) 김용국 외, 앞의 책, 323~324쪽.

24) 김용국 외, 위의 책, 325~326쪽.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487쪽.

宋相燾, 앞의 책, 294쪽.

25) 宋相燾, 위의 책, 292~293쪽.

金厚卿, 앞의 책, 702~703·1086쪽.

26)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497~498쪽.

宋相燾, 위의 책, 296쪽. 박치익은 사건 직후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고 이듬해 9월에 형집행으로 순국하였다.

27)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I, 445쪽.

이들 거사의 여진은 9월 18일 農民團의 평남 강동경찰서 투탄으로 이어졌다. 이 거사로 유리창 일부가 파손되고 일경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농민단은 군내 청년층 농민, 탄광부, 금융조합 소사 등 10여 명이 군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로 전달하고자 8월 초에 결성한 비밀결사였는데, 우선 민심을 격동시킬 필요에서 관공서를 파괴키로 하고 탄광용 다이너마이트로 폭탄을 만들어 던진 것이었다.²⁸⁾ 뒤이어 10월에는 평남 안주에서 경찰서 및 읍내 부호가에 투척키 위해 폭탄을 제조해 두고 있던 康龜年과 徐光憲이 피체되었다.²⁹⁾

1920년의 평안도지방 의열투쟁의 열기는 이듬해 초에 함경남도로 파급되었다. 1921년 1월 18일에 풍산군 안수면의 부호 金丙善과 廉相漢이 처살되었는데, 이는 임시정부의 함남교통국 조직과 연관된 거사로 추정된다.³⁰⁾ 이어서 2월 4일에는 갑산군 운흥면에서 관내 순시중이던 군청 서무주임과 면장, 면서기가 3명의 무장대에 피습당해 면장이 즉사하고 군서기가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³¹⁾

2) 1921년 이후의 의열투쟁 양상과 추이

(1) 의열단의 국내외 투쟁

국내외를 망라하여 1920년대의 의열투쟁사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선동적인 모습을 보여준 조직은 의열단이었다. 활동 기간과 지속도, 거사(추진)의 빈도와 실적, 파장과 영향, 어느 면을 보더라도 단연 으뜸이었다. 의열단이 적어도 1920년대 전반기의 암살과피운동상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고, 나아가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대명사요 그 용어의 어원으로까지 여겨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용국 외, 앞의 책, 335~336쪽.

28)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543~545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19~122쪽.

2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523쪽.

30) 金度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친일파 처단과 의열투쟁〉(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206·212쪽.

31)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 - 分冊, 514쪽.

의열단은 이미 창단시에 일급 부류의 암살대상(조선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수뇌, 대만총독, 賣國賊, 친일파 거두, 敵探, 반민족적 土豪劣紳)과 다섯 가지의 파괴대상(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중요기관)을 선정해 놓고 있었다.³²⁾ 단의 활동목표가 식민지 지배의 핵심기관(정치기관, 수탈기구, 선전기관, 폭압기구)과 그 수뇌·요인 및 친일 민족반역자 집단의 제거·숙청으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의열단은 초지일관으로 1921년 이후에도 줄기차게 투탄·저격 거사를 기도하고 실행하였다.

1920년의 두 차례 폭탄거사에 이어 1921년 9월 중순에도 의열단은 대담무쌍한 방법으로 투탄거사를 감행하여 성공시켰다. 이는 신입단원 金益相이 조선총독부 청사 안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가 폭탄 두 발을 던져 터뜨리고는 잠적하여 북경의 본부로 무사히 귀환한 사건이다. 1922년 3월 28일에는 상해 黃埔灘 부두에서 일제 침략군부의 거물인 육군대장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암살하기 위한 투탄저격 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익상·吳成崙·李鐘岩이 각각 제1선, 제2선, 제3선을 담당한 이 거사는 폭탄이 불발하고 탄환이 빗나가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고, 영·미·중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한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그 후 의열단은 상해파 高麗共產黨으로부터 ‘레닌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아³³⁾ 상해에 열두 군데의 폭탄제조소를 설치하고 헝가리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성능 좋은 폭탄을 자체 제조하고 상비할 수 있게 되었다.

1922년 여름, 의열단은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의 요청으로 국내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거둘 것을 계획하고, 우선 원활한 징수 목적을 위해 서울에서 폭탄거사를 단행키로 했다. 거사 실행자로 선임된 단원 김상옥이 먼저 서울로 잠입한 후 폭탄이 밀송되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1923년 1월 12일에 종로경찰서가 누군가의 척탄에 의해³⁴⁾ 대파되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기도경찰부는 김상옥이 입국해 있음을 탐지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32) 朴泰遠, 앞의 책, 27~28쪽.

33)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창작과비평사, 1997), 88쪽.

34) 김영범, 위의 책, 76쪽에 투탄자에 관한 엇갈리는 기록과 증언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참조.

효제동의 은신처를 습격했다. 김상옥은 겹겹이 포위한 경찰병력과 대치하여 세 시간이나 총격전을 벌이다 최후의 일발로 자결 순국하였다.

위의 거사계획과는 별도로 의열단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조직과의 합작에 의한 대규모의 국내 폭탄거사도 추진하였다.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金始顯은 경기도경찰부 경부 黃鈺의 은밀한 도움으로 1923년 3월 초에 18개의 고성능 폭탄을 서울로 갖고 들어왔다. 신의주와 안동현에 보관시켜 둔 나머지 18개도 곧 반입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 잠입 후 이틀만에 거사 요원과 조력자 전원이 피검되어, 제2차의 적 기관 및 요인 총공격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金在震의 밀고 때문이었든³⁵⁾ 황옥을 끌어들이던 모험의 대가였든,³⁶⁾ 뼈아픈 실패요 인적 역량의 큰 손실이었다.

1923년 1월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 후, 의열단은 申采浩가 작성해 준 〈조선혁명선언〉을 발표하여 암살과괴운동의 논리와 이념적 지표를 당당히 천명했다. 그 영향이었든지, 국민대표회의에 참석중인 각지 운동단체들이 4월 1일 국내·일본·만주에 암살 임무의 6개 결사대를 파견할 것을 결의했고,³⁷⁾ 의열단 가입자도 크게 늘어나 단원 수가 약 150명에 이르렀다. 3년 6개월만에 단원 수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의열단은 일제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대규모 광역거사를 추진하였다. 일본 關東軍이 장악하고 있는 남만주철도를 폭파하고 그 연변을 교란시키는 양동작전을³⁸⁾ 서곡으로 하여 서울과 동경에서 대대적인 암살과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결사대원 16명을 파견하기로 계획된 국내거사를 위해서 상해 의용단 및 북경 천도교도 조직과 제휴했고, 회기 중의 제국의회 습격과 동경거사를 위해서는 朴烈 등의 한인 아나키스트그룹과 공동행동을 하기로 밀약하여 선발대를 보내고 폭탄 50개의 이송 준비까지 마쳐두

35) 蔡根植, 앞의 책, 183·184쪽.

金承學, 앞의 책, 261쪽.

36) 김영범, 앞의 책, 94~97쪽. 의열단 조직을 일망타진하려 한 시라카미(白上佑吉) 경기도 경찰부장의 치밀한 계략이 있었다는 지적도 재판 과정에서 나왔다.

37) 《東亞日報》, 1923년 3월 22·24·31일.

金度亨, 앞의 글, 214쪽 재인용.

38) 伊藤武雄 外 編, 《現代史資料》 31, 滿鐵 1(東京:みすず書房, 1966), 580쪽.

었다.³⁹⁾ 그러나 10월 중 실행 예정이던 광역-동시거사 계획은 9월 1일의 關東大地震으로 좌절되었다. 군중폭동 예방책으로 일제가 조작한 유언비어로 인해 동경의 6천여 한인들이 학살되었는데, 그 와중에 선발대원들도 다수 희생되고 만 것이다. 또한 박열은 일왕 암살 모의 혐의로 체포되고, 상해에서는 폭탄 은닉처가 일경의 급습을 받아 50개 모두 압수되었다.

이에 의열단은 다시 북만주의 무장단체 赤旗團과의 합작으로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裕仁)의 결혼식 일자를 전후한 1924년 1월 경에 폭탄 300개로 동경거사를 결행하려 했다. 그러나 거사자금에 전혀 조달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발본한 단원 金祉燮가 제국의회 폭파를 목적으로 상해로부터 일본으로 밀항했는데, 의회가 휴회중임을 안 그는 1월 5일 저녁, 황궁으로 접근하다 경비병에게 저지당하자 가지고 간 폭탄 3개를 궁성 입구의 니주바시(二重橋)에 던졌다. 항해중에 스며든 습기 탓으로 폭탄은 모두 불발했으나, 그의 용감한 단신 폭탄거사 기도에 일제는 또 한번 크게 경악했다.

거듭된 실패의 역경과 자금공핍의 난관을 헤쳐나가며 의열단은 1924년에도 동경 총공격과 민중봉기 촉발 목적의 국내거사 계획을 계속 추진하였다. 3월 하순에 단원 3명이 일본으로 잠입하여 5월 총선거 및 임시의회 개회를 기한 거사를 준비하였고, 6월에도 統義府와 합작에 의한 일본거사를 추진하였다. 11월 말에는 의열단이 결사대원 30여 명을 한 달 전에 국내로 들여보냈다는 기사가 각 신문에 실려서, 총독부 당국이 민심불안을 이유로 모두 압수하기도 했다.⁴⁰⁾ 1924년 말과 1925년 초에도 일·소 국교 재개에 분개한 의열단원들이 일본에서의 거사를 위해 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곤 했다. 그럼에도 이들 거사계획은 추진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금난과 일제 관헌의 감시망, 첩보망이 더욱 주밀해졌기 때문이었다.

39) 김영범, 앞의 책, 111~113쪽.

40) 朝鮮總督府警務局,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東亞日報)》(1932), 219쪽 · 《同(朝鮮日報)》(1932), 167쪽 · 《同(時代日報)》(1932), 74쪽.

1925년으로 들어서면서 의열단 지도부는 독립운동의 주·객관적 여건과 내외형세가 그 동안 크게 변했고 현재도 급변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이들은 암살 파괴 거사가 대중 일반을 각오시켜 일제봉기의 격발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보다는 농민·노동자·청년 대중의 조직화와 체계적인 의식화가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대안으로 부각되었다. 사회주의운동 진영의 일각에서 암살파괴운동에 대해 가하는 비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런 사정들을 놓고서 고민하던 의열단 지도부는 암살파괴운동 일변도의 활동이 이제는 유효적절한 노선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고, 대중투쟁과 군사운동의 결합을 향후의 대안적 노선으로 설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1925년 8월에 의열단은 본부를 남중국의 廣州로 옮긴 후, 핵심 단원들이 黃埔軍官學校에 입학한 것과 1926년에 단을 혁명정당 겸 반공개적 대중운동조직 체제로 개조하려 함으로써⁴¹⁾ 노선전환을 꾀하였다.

이리하여 의열단의 암살파괴운동은 1925년 상반기로 사실상 종결되었고, 아나키스트 간부단원 柳子明만이 홀로 기존 노선을 고수하여 몇몇 후속거사를 주도하였다. 1925년 3월 말 북경에서 李仁洪과 李箕煥이 고급밀정 金達河를 교살한 것도 실은 유자명이 金昌淑과 李會榮의 연결을 받고 단원을 시켜 多勿團과의 합작으로 실행케 한 일이었다.⁴²⁾ 1926년 12월 28일에 결행된 羅錫疇의 폭탄거사에도 그 추진과정에 유자명이 일부 관여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의열단의 거사로 보기 어렵다. 이는 국내 운동계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한 김창숙·이동녕·김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신채호가 제공한 폭탄 두 개를 받아 휴대하고 인천항으로 단신 입국한 나석주는 곧장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지점에 폭탄을 던져 건물을 부수고 일본인 7명을 총격 살상한 후 경찰대와의 교전 끝에 자결하였다. 꺼져가는 민족혼의 심지에 다시 불을 당기려 한 살신성인의 장거였다.

41) 김영범, 앞의 책, 184~186쪽.

42) 朴泰遠, 앞의 책, 174~177쪽.

朝鮮總督府 慶尙北道警察部, 《高等警察要史》, 109쪽.

(2) 재만 독립군의 국내외 의열투쟁

1920년의 鳳梧洞·靑山里大捷을 필두로 하여 본격화한 재만 독립군의 무장투쟁은 1921년 이후 192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주로 남만주의 독립군조직들이 활발히 전개한 국내진입작전, 그리고 만주 현지에서 벌인 친일단체 및 일제기관 파괴와 밀정·주구 처단 활동은 내용상 의열투쟁에 포함시킬 부분이 많다. 특기할 만한 몇몇 사례들을 통하여 독립군 의열투쟁의 흐름과 진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20년 8월에 서간도 관전현에서 대한광복군사령부 직속의 국내진입 병동대로 碧昌義勇團이 조직되었다. 단원들은 단장 楊承雨의 진두지휘 아래 평북 벽동·창성군의 산악지형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찰관주재소와 금융조합 습격 파괴, 일경 및 밀정·부일배 척살, 군자금 수취 등의 활동을 1924년 봄까지 맹렬히 전개하였다.⁴³⁾ 1922년 4월 金萬秀·崔炳鎬 등 서로군정서 헌병 대원 4명은 은신처를 포위하여 공격해 오는 하얼빈 일본총영사 쿠니요시(國吉精保)와 경찰서 형사부장 외 일경 10여 명을 사살하고 계속 교전하다 전원 전사하였다.⁴⁴⁾

1922년 8월에 성립한 大韓統義府 예하의 의용군 6개 중대도 保民會 등 재만 친일단체의 파괴와 밀정·주구 처단 활동, 평북지방 진입 후의 일제기관 습격 및 시설물 파괴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1924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일경 28명과 친일과 32명 사살이라는 큰 전과를 올린 바도 있다.⁴⁵⁾ 통의부로부터 떨어져나간 義軍府의 유격대장 李京日是 1923년 8월 8일에 대원 30여 명을 이끌고 평북 의주군 광평면 청성진의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부장을 사살하고, 주재소와 면사무소·우편국·세관출장소 등 인근의 일제기관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⁴⁶⁾

43) 宋相燾, 앞의 책, 298~299쪽.

金厚卿, 앞의 책, 691쪽.

44) 金萬秀 외, 앞의 책, 390쪽.

金厚卿, 위의 책, 400~401쪽.

45) 朴杰淳, 〈大韓統義府 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244~246쪽.

46) 金承學, 앞의 책, 349쪽.

1923년 여름에 임시정부 군무부의 직속기관으로 성립한 陸軍駐滿參議府도 1926년 경까지 줄기차게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일경 사살·밀정 처단·군자금 기부를 거부하는 부호 척살, 경찰관주재소 습격과 시설물 방화 및 파괴를 수십 차례 실행했다. 1924년 5월 19일에는 참의장 白狂雲의 특별지시로 편성된 8인 특공대가 평북 위원군 마시탄의 대안 절벽에 매복해 있다가 사이토 총독을 태운 국경순시선이 나타나자 집중사격을 가하여 혼비백산 도주하게 만들었다.⁴⁷⁾ 사정거리가 짧아서 총독 격살에는 실패했지만, 이 거사 소식이 전해짐으로써⁴⁸⁾ 독립운동자들은 크게 고무되어 새롭게 결의를 다졌다. 또한 1926년 7월에는 제2중대원 李壽興과 柳澤秀가 서울로 들어와 동대문과 출소에 사격을 가하고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사무소와 경찰관주재소도 타격하였다.⁴⁹⁾

1924년 11월에 성립한 正義府에서도 李靑天·오동진 등의 탁월한 군략으로 군사부 별동대가 수시로 국내진입작전을 전개하여, 주구배 암살, 관리 처단·적기관 방화 및 파괴 공작을 수행하였다. 그 중에도 金錫河와 鄭伊衡이 각각 이끄는 제5중대와 제7중대의 활약이 돋보였다.⁵⁰⁾ 또한 5중대원 이진무는 1925년 7월 4일의 車輦館義舉를⁵¹⁾ 비롯하여 금융기관 및 경찰관서 습격, 일경 사살, 밀정 처단 등의 거사를 수차례 걸쳐 수행한 결과, ‘국경의 흑선풍’·‘獨眼(애꾸눈)將軍’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⁵²⁾

북만주에서는 1920년에 조직된 義成團(단장 片康烈)이 길림·장춘·이통 일대에서 일본영사관 등 일제관서 습격과 일경 사살, 주구 토벌 등의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⁵³⁾ 1925년에 성립한 新民府도 별동대 조직을 통하여 만주 각처의 일제 주구단체인 朝鮮人民會의 간부를 색출·처단하고 그 조

47) 김승학, 위의 책, 351쪽.

김용국 외, 앞의 책, 470~475쪽.

48) 《東亞日報》, 1924년 5월 20·21일.

《獨立新聞》, 1920년 5월 31일.

49) 趙素昂, 《遺芳集》(亞細亞文化社, 1992), 160쪽.

50) 蔡根植, 앞의 책, 137쪽.

51) 김용국 외, 앞의 책, 504~508쪽.

52) 宋相燾, 앞의 책, 343~344쪽.

53) 金承學, 앞의 책, 341쪽.

직을 해체시켰으며, 城東士官學校 졸업생들로 조직된 특수공작대를 국내로 특파하여 암살·파괴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꾸준히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⁵⁴⁾

(3) 병인의용대의 의열투쟁

의열단이 암살파괴운동의 대열에서 물러선 직후인 1926년 1월 초 상해에서 임시정부 경무국장 羅昌憲의 주도로 병인의용대가 창립되어 의열단식 대일투쟁의 맥을 이어갔다. 창립선언에서 “암살·파괴는 혁명가의 無上の 무기이며 유일한 수단이다. … 귀하가 과연 혁명가라면 폭탄을 안아라, 칼과 친하라”⁵⁵⁾고 언명했다시피, 병인의용대는 ‘철혈주의’를⁵⁶⁾ 표방하며 일제 주구 숙청, 반동분자 엄단, 적의 중요시설 파괴 및 중요인물 격살 등을 가장 큰 임무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임시정부 보위-엄호단체의 성격도 강하였다. 60여 명의 대원 중에는 1920년대 초의 국내 폭탄거사에 참여했던 역전의 용사들도 여럿 있었으니, 김예진·임용일[林得山] 등이 그러했다.

창립 직후인 2월 초부터 3월까지 朴濟乾·李秀鳳 등 병인의용대원은 일본총영사관의 밀정 5명을 연이어 척살하였다.⁵⁷⁾ 일찍이 1920년에 임시정부 경무국원들이 일본영사관 밀정 金道淳과 총독부 밀정 鄭弼和를,⁵⁸⁾ 구국모험단원 李錫이 총독부 밀정 金秉憲을⁵⁹⁾ 처단했던 것과 같은 식이었다. 이 일련의 웅장거사에 같이 참여했던 崔炳善과 張英煥(張鎭元)이 피체 수감되자, 李德三(李永善)이 그들을 구출하고자 4월 16일에 일본영사관원 內堀의 辦事處인 勝田館을 습격해서 수류탄을 던져, 일경 여러 명을 폭살시켰다.⁶⁰⁾

54) 김용국 외, 앞의 책, 493~495·545~550쪽.

55)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576쪽.

56) 여기서 ‘철혈’은 ‘黑鐵赤血’의 줄임말이고, ‘흑철’이란 무기를 뜻한다.

57) 趙凡來, 〈丙寅義勇隊 研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365쪽.

58) 김구 著, 김학민·이병갑 註解, 《정본 백범일지》(학민사, 1997), 274·277·278쪽.

5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 27, 286쪽.

6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53쪽.

趙素昂, 앞의 책, 158쪽.

일본총영사관 건물 폭파공작도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벌였다.⁶¹⁾ 제1차 거사는 1926년 4월 8일에 金光善 등 대원 3인이 자동차를 타고가며 영사관 구내로 폭탄 2개를 던져 건물 벽과 유리창을 대파시킨 것이었다. 제2차 공작은 9월 5일에 인력거꾼을 시켜 시한폭탄을 영사관 안으로 들여보내려 한 것인데, 정문에서 지체하는 사이에 폭탄이 터져 영사관 폭파에는 실패하였다. 제3차 거사는⁶²⁾ 姜昌濟 등이 시한폭탄을 장치하여 영사관 창고를 대파시킨 것이었다. 이에 앞서 1926년 6월에는 純宗 장례를 전후로 국내 폭탄거사도 계획하여 高俊澤·이덕삼 등 4인의 결사대가 중국 상선 편으로 상해를 출발했는데, 사전 기밀누설로 황포강 하류에서 일본 수상경찰에 전원 피체되었다.⁶³⁾

이처럼 발족 첫 해인 1926년에 맹렬한 활동상을 보인 병인의용대는 1927년 이후로는 상해지방 독립운동계 내부의 좌익세력 제압과 임시정부 보위에만 전념하여 의열투쟁의 실적을 거의 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데는 당시의 중국지역 독립운동진영 안팎의 전반적 정세와 분위기 탓이 컸다. 중국의 국공분열 및 좌우대결의 여파가 한국독립운동 대외에도 밀어닥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독립운동계 내부의 관심과 역량은 한동안 민족유일당 또는 협동전선 문제를 둘러싼 조직정렬과 노선논쟁으로 집중되었으며, 임시정부의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조직적 의열투쟁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리하여 1927년 이후로 4, 5년 동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열투쟁의 열기가 앞 시기에 훨씬 못미치는 소강상태가 연출되었다. 몇 건의 개인 단독의 거와 밀정 척살, 군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습격거사만이 간간히 나타났

6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835쪽.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606~607쪽.

김용국 외, 앞의 책, 614쪽.

趙凡來, 앞의 글 363~364쪽.

62) 거사 시점은 자료에 따라 1926년말과 1927년 두 가지로 나온다.

63) 《東亞日報》, 1926년 6월 4·19일.

趙素昂, 앞의 책, 158쪽.

김용국 외, 앞의 책, 610~612쪽.

을 뿐이다. 그러다가 1931년에 ‘9·18사변’(만주사변)의 발발과 때를 맞춰 독립운동의 침체 국면을 타개하려는 조직적 의열투쟁이 재활성화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된다.

(4) 개인 단독의거의 흐름과 사례들

1920년대에는 의미 있는 개인 단독의거도 여러 차례 있었다. 단체조직의 특공거사나 독립군조직의 유격전적 거사들과는 달리, 혼자 뜻을 세우고 준비하여 단신으로 결행하는 방식이었다. 개인 단독의거는 열렬한 의기와 자기희생의 비장한 각오 없이는 시도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의열’의 본래적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행동양식이다. 아울러 그 발생지점들을 놓고 보면, 집단적·조직적 의열투쟁의 흐름이 맞게 된 어떤 공백이나 休止 부분을 대신 채워주는 구실도 하였다.

1921년 2월 15일 동경 유학생 梁權煥이 친일파 거두 閔元植을 척살하였다. 민원식은 임시정부가 ‘7가살’ 범주를 규정하여 공표하면서 특별히 거명한 직업적 친일분자로, 총독부의 조종대로 움직이며 반동단체인 國民協會를 만들고 그 회장이 되어 기만적인 참정권운동을 전개하는 등 임시정부의 절대독립·완전독립론에 역행한 자였다. 그 민원식이 조선인 참정권 청원서를 제국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도일하여 동경 제국호텔에 유숙하고 있음을 알게 된 양근환이 숙소로 그를 찾아가 크게 힐책하고 단도로 찔러 절명시킨 것이다. 응징거사에 성공한 양근환은 상해로 탈출하려다 나가사키(長崎)에서 피체되어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1926년 4월 28일, 서울 한복판 金虎門 앞에서 일용노동자 宋學先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일인 2명을 습격하여 비수로 찢어서, 경성부 평의원 다카야마(高山孝行)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國粹會 경성지회장 사토(佐藤虎次郎)가 중상을 입었다. 늘 안중근을 흠모하며 총독 사이토를 처치할 기회를 고대해 온 송학선은 순종이 승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조문길의 총독을 습격하면 척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화문과 금호문 앞에서 사흘째 그를 기다렸다. 거사 당일 낮, 예복 차림의 일인 3명을 태운 승용차가 금호문을 빠져나오는데 주

위의 누군가가 “총독이 지나간다”고 말하므로, 송학선은 자동차를 뒤따라가다 순식간에 뛰어올라 중앙석 탑승자와 좌측 동승자의 가슴과 복부를 비수로 찔렀다. 그러나 실은 사이토와 외모며 체격이 비슷한 사토가 총독으로 오인된 것이었고, 때문에 송학선은 원래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그의 의거는 순종의 서거가 다시금 불러일으킨 민족적 울분과 반일정서를 대변해 주기에 충분했다. 거사 직후 경찰대와 대치하여 혈투를 벌이다 피체된 송학선은 1927년 11월에 사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1927년 10월 8일 대구 중심가의 조선은행 지점 옆 한길에서 폭탄이 터져 은행 창문 70여 개가 완파되고 은행원과 일경 수 명이 중상을 입었다. 張鎭弘이 단행한 시내 주요기관 폭파기도의 한 결과였다. 원래 그는 경북도청·지방법원·형무소·경찰서 등 9개소에 동시 투탄할 것을 계획했는데, 동지를 구하지 못하자 폭파 대상을 네 군데로 줄이고 단독거사로 방향을 바꿨다. 스스로 폭탄을 만들어 산중에서 위력시험도 해본 그는 거사 당일 여관방에서 나무상자 네 개에 폭탄을 장치하여 도화선에 점화시켜 놓고 포장한 후, 종업원을 불러 선물상자이니 속히 배달해 달라고 부탁한 뒤 피신했다. 맨 먼저 조선은행 지점으로 배달된 폭탄상자는 화약 냄새를 맡은 일본인 행원이 도화선을 끊어버려 불발했고, 경북지사, 식산은행 지점장, 경북경찰부장에게 배달이 부탁된 다른 세 상자는 비상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빼앗아 도화선을 끊으려는 차에 연쇄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그 후 장진홍은 다시 안동과 영천에서의 거사를 계획하고 폭탄 다섯 개를 張容熙와 金士實에게 건네주었는데, 두 사람은 거사 날짜를 미루다 기회를 놓쳤다. 수사망을 피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장진홍은 마지막으로 동경의 귀족원과 경시청 건물에 투탄할 것을 계획하고 폭약을 구하려던 중에 경북도경 형사대에 피체되었고, 사형판결이 확정된 후 1930년 대구형무소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1928년 5월 14일 대만의 臺中市에서 한인 청년 趙明河가 일본 육군대장 구미노미야(久邇宮邦彦王)에게 독검으로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노미야는 일왕 히로히토의 丈人이요 군부·정계 요인으로서는, 대만의 일본군 부대 검열을 마치고 臺北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반년 전에 대만으로 건너와 일

본인 가게의 점원이 된 조명하는 항일운동에 투신키로 했던 애초의 결심대로 야마가미(山上) 대만총독을 격살하고자 보검을 구입하여 독약을 발라놓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구미노미야가 대만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야마가미 대신에 구미노미야를 처단하기로 작정하고 거사를 준비했다. 거사 당일 환송군중 속에서 뛰쳐나온 조명하는 구미노미야에게 일격을 가하려다 수행원의 제지를 받자 재빨리 독검을 구미노미야에게 던졌다. 칼에 맞아 어깨 부상을 입은 구미노미야는 온몸에 독이 퍼져 앓다가 8개월 뒤에 사망하였다. 거사 현장에서 체포된 조명하는 대만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어 24세를 일기로 순국했다.⁶⁴⁾

〈金榮範〉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1) 한인애국단의 의열투쟁

1920년대의 의열투쟁을 김원봉과 의열단이 대표했다면, 1930년대의 의열투쟁은 金九와 韓人愛國團이 대표했다. 그만큼 두 사람과 두 단체는 의열투쟁사에서 쌍벽을 이루는 존재였다.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이 만주사변 발발 이후 독립운동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특무대’의 설치와 암살과괴공작의 추진을 의결하면서 성립되었다.¹⁾ 이에 관한 모든 일의 계획과 실행은 임시정부 재무부장 김구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고, 그가 새 특무조직의 명칭을 한인애국단으로 정하였다.²⁾ 요컨대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의 특명에

64) 趙恒來, 〈趙明河의 臺灣義學와 그 意義〉(《韓國學研究》2-別冊, 淑明女大, 1991), 48~57쪽.

1) 愼鍾度, 〈白凡 金九와 韓人愛國團의 獨立運動〉(《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Ⅱ, 韓國民族運動史研究》, 나남출판사, 1997), 777쪽.

의해 임시정부 직할로 성립한 의열투쟁단체였다.

극비의 점조직으로 구성·운영되었기 때문에 전체 단원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80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³⁾ 10여 명의 핵심 단원 가운데 安恭根이 김구를 곁에서 늘 보좌했다. 한인애국단장으로서 김구는 1931년 말부터 이듬해 5월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특공거사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 거사 현장은 각각 일본(동경)·중국(상해)·만주(대련)·국내(서울)로 잡혀 있었으며, 나아가 이는 웅대한 구상이요 주도면밀한 계획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1) 이봉창의 동경의거

일본에서 다년간 노동자로 생활하다 큰 뜻을 품고 상해로 건너온 李奉昌이 김구를 찾아와 조국독립을 위한 희생적 거사에 몸바칠 뜻을 간곡히 표하므로 그에게 일왕 폭살의 임무가 맡겨졌다. 투척용과 자결용 수류탄 한 개씩을 받아 일본으로 되돌아간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육군관병식을 마치고 동경경시청 정문 앞을 통과중인 일왕 히로히토의 귀궁 행렬을 향해 회심의 폭탄 한 발을 던졌다. 척탄은 히로히토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차로 오인된 궁내대신의 마차 앞에 떨어져 폭발하여, 일왕 폭살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⁴⁾ 그럼에도 제국의 심장부인 동경에서, 그것도 ‘천황’의 면전에서 처음 성공시킨 폭탄의거였기에 그 정치적 반향은 컸다. 중국 신문들도 일제히 대서특필했는데, 《國民日報》·《汕報》등 몇몇 신문이 이 거사를 찬양하고 일왕 폭살의 실패를 애석해 하는 논조의 기사를⁵⁾ 실었다. 이로 인해 이 신문들은 일본의 압력으로 정간되었고, 일본군은 그것을 상해침공의 한 빌미로 삼았다.

2) 김구, 《정본 백범일지》(학민사, 1977), 298쪽.

國史編纂委員會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2, 臨政篇 II(1968), 256쪽.

3) 金昌洙, 〈韓人愛國團의 成立과 活動〉(《한국독립운동사연구》2, 1988), 443쪽.

4) 李炫熙, 《李奉昌義士의 抗日鬭爭》(國學資料院, 1997).

5) 崔書勉, 〈이봉창의거 연구 서설〉(한국근현대사학회 편, 앞의 책), 164~170쪽.

(2) 상해거사의 추진과 윤봉길 의거

일본 해군의 도발로 ‘1·28사변’(상해사변)이 발발한 직후, 김구는 홍구부두에 정박중인 군함 出雲號에 일본군사령부가 설치되었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그것의 폭파를 추진했다. 배 밑창에 시한폭탄을 부착시켜 폭파시키기로 하고, 중국인 잠수부 2명을 고용해서 폭발시간을 약정하고 2월 12일 낮에 잠수시켰다. 그러나 잠수부들이 겁을 먹어 지체한 탓에 폭탄은 부착되기 전의 상태로 수중 폭발해버렸고, 결국 일본군사령부 폭파 기도는 실패하였다.⁶⁾ 이에 김구는 일본군의 黃埔江灣 비행기 격납고와 탄약고를 폭파해버릴 요량으로 상해 병공창 주임인 金弘壹에게 시한폭탄 제조를 부탁해 두고 단원 6명을 군수노동자로 침투시켜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3월 3일에 일본군이 임시휴전 성명을 내고 휴전협정 교섭이 시작되면서 기회가 사라져, 이 거사계획도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⁷⁾

중국 육군 제19로군을 격퇴시키고 상해를 점령한 일본군은 기고만장하여 天長節(일왕 생일) 행사를 겸한 승전경축식을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 거행한다고 발표했다. 김구는 이 행사를 폭탄거사의 좋은 기회로 삼고, 김홍일로부터 건네받은 고성능 폭탄 두 개를 청년지사 尹奉吉에게 주어 거사에 나서도록 했다. 기지를 발휘하여 엄중한 경비망을 뚫고 식당에 입장한 윤봉길은 행사 끝 무렵에 중앙 연단을 향해 수통형 폭탄을 힘껏 던졌다. 큰 폭발음과 함께 폭탄은 단상의 일본 군·관·민 요인 7명을 일거에 쓰러뜨렸다. 상해거류민단장 카와바타(河端貞次)는 즉사했고, 상해주둔군 총사령관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은 중상을 입어 입원했지만 사망했으며,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吉三郎) 중장,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중장, 주중공사 시게미츠(重光葵), 상해총영사 무라이(村井), 거류민단 서기장 토모노(友野) 등 5명이 실명하거나 수족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상해의 일본 군·정 수뇌부에 섬멸에 가까

6) 慎鋪廈, 앞의 글, 782~783쪽.

7) 김구, 앞의 책, 300쪽.

金昌洙, 앞의 글, 453쪽.

慎鋪廈, 위의 글, 783쪽.

운 대타격을 입힌 것인데, 이것이 한 요인이 되어 일제는 내륙으로의 확전을 단념하고 5월 5일에 중국과 긴급 정전협정을 맺었다.⁸⁾

윤봉길 의거의 상황과 결과는 서방 각국으로도 즉시 타전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다. 중국인들도 모두가 찬탄하는 가운데 蔣介石 총통은 “백만 중국군대가 못한 일을 고려청년 한 사람이 해냈으니 장하다”며 거듭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봉창의 의거와 함께 그의 의거로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일제의 교묘한 여론조작과 유도 때문에 발생한 萬寶山事件으로 인해 조성되었던-은 깨끗이 불식되고, 오히려 중국측이 한국독립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면 대반전이 이루어졌다.

(3) 국내·만주거사 계획의 추진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가 있기 전에 김구는 국내 민심을 격동시킬 목적으로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암살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단원 李德柱와 俞鎮植에게 폭탄과 권총을 주어 3월에서 4월 사이에 밀파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고지인 황해도에 들렀다가 곧 피체되어 한인애국단의 국내거사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⁹⁾

그 뒤 일제의 만주침략과 만주국 건립에 대한 중국정부의 제소로 국제연맹 조사단이 1932년 5월 하순에 만주 현지를 조사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김구는 이에 때맞춰 투탄·저격거사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조사단을 출영·환송하러 나올 관동군사령관(本庄繁), 관동청 장관(山岡萬之助), 남만주철도 총재(內田康哉) 등, 만주의 일제 요인들을 암살함이 거사의 일차 목표였다.¹⁰⁾ 아울러 일제의 중국침략 죄상과 대륙공략 흥계를 폭로하고 한·중 두 민족의 강렬한 반일·항일 의사를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김구는 단원 柳相根과 崔興植에게(이들은 上海

8) 愼鍾度, 〈윤봉길의 상해홍구공원 의거〉(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정부수립80주년기념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180~191쪽.

9)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732~733쪽.

10) 嚴恒燮, 《屠倭實記》(國際文化協會, 1946), 66쪽.

韓人靑年黨 당원이기도 했다) 대형 수통폭탄과 권총을 지급하고, 조사단이 4일 동안 머물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련으로 밀과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최홍식이 김구에게 보낸 자금지원 요청 전보가 일제 관헌의 수사 단서가 되어, 거사 예정일 이틀 전인 5월 24일에 두 단원이 피체됨으로써 거사 기도는 좌절되었다.¹¹⁾

일제는 이 의열거사 계획을 조사단 암살 목적의 가공할 테러계획인 것처럼 날조하여 역전전하러 했다. 이에 한인애국단은 동년 8월 10일에 선언문을 발표하여 내외에 해명하고, ‘폭렬행동’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리가 허다한 희생을 돌아보지 않고 끝끝내 폭렬한 행동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 손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고 사선을 쫓겨난 우리 한국사람인지라 이 길을 버리고는 또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공하는 날까지는 이런 폭렬한 행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嚴恒燮, 《屠倭實記》, 國際文化協會, 1946, 66쪽).

이렇듯 한인애국단이 실행했거나 계획했던 폭탄거사들은 반침략 민족독립 쟁취의 대의에 따른 항일특공작전의 성격을 띤 것이었지, 흥포한 테러리즘으로 매도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윤봉길 의거에 따른 일제의 보복적 대탄압으로 상해는 더 이상 안전한 독립운동기지가 되지 못하여 임시정부는 杭州로 이전했다. 이런 이유들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더 지속되지를 못하였고, 김구는 1934년에 韓國特務隊獨立軍을 결성하여 재인력으로 군사적 의열투쟁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나 그 성과는 기록된 것이 없다.

11) 嚴恒燮, 위의 책, 63~64쪽.

國會圖書館 編,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732~735쪽.

2) 재중국 아나키스트들의 의열투쟁

중국 관내와 만주에서 활동하던 한인 아나키스트 30여 명은 1931년 9월 경에 상해에서 南華韓人青年聯盟을 결성했다. 이 조직은 10월 말에 한·중·일 3국 아나키스트 연합체로 抗日救國聯盟이 결성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¹²⁾ 항일구국연맹은 일제기관 파괴, 일제 요인 암살, 중국 친일분자 숙청을 주요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행동부를 두었는데, ‘黑色恐怖團’으로 불린 행동부는 친일화한 중국 외교부장 汪精衛 암살기도 저격사건과 복건성 廈門의 일본영사관 폭파¹³⁾로써 의열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행동부는 1931년 12월에 天津의 일제기관들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했는데, 李容俊이 일본총영사 관저에, 柳基文이 부두에 정박 중인 11,000톤급 일본 기선에, 柳基石이 일본군 병영 막사에 폭탄을 던졌다.¹⁴⁾ 그러나 아쉽게도 투탄 결과는 각각 담장 일부 파괴, 수중 폭발,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1933년 3월 17일 남화한인청년연맹의 白貞基와 李康勳은 상해 공동조계의 요리점 六三亭에서 중국정부 요인 매수 목적으로 연회를 베푸는 주중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有吉明)와 일본군사령부 간부들을 일거에 폭살할 것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육상점으로 접근하던중에 거사계획을 미리 알고 포위해 온 일본군 헌병대에 피체된 것이다.

3) 한국혁명당총동맹과 남자현의 의열투쟁

1927년 북경에서 결성된 의열단체 韓國革命黨總同盟은 1928년 천진에서 일제주구 李泰華를 처단했고 1930년에는 천진의 일본은행을 습격하여 거금을 탈취하였다. 만주국이 건립된 직후인 1932년 주만 일본전권대사 무토(武

12)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編, 《韓國아나키즘運動史(前編)》(螢雪出版社, 1978), 340쪽.

13) 朴烜, 〈南華韓人青年聯盟의 결성과 그 활동〉(《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探究堂, 1992), 968쪽.

14)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341쪽.

藤信義) 대장 암살과 관동군사령부 폭파를 계획하고 孫基業 등 4명은 장춘·봉천 등지로 무토의 뒤를 밟으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폭탄과 총기를 휴대하고 있음이 장춘에서 발각되어 전원 피체됨으로써 거사는 좌절되었다.¹⁵⁾

일찍이 의병전쟁과 3·1운동에 참여한 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줄곧 독립운동의 길을 걸어 온 여성투사 南慈賢도 1933년 봄에 新京(長春의 새 지명)의 만주국 건국 기념식장에서 일본대사 무토오 등을 폭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동지 李圭東과 함께 거사준비에 임하였는데, 거사 예정일을 며칠 앞둔 2월 말에 신경 교외에서 일경에 피체되고 말았다. 62세의 노구로 수감된 그는 단식투쟁으로 일제에 항거하다 서거하였다.¹⁶⁾

4) 상해와 북경에서의 밀정·친일배 처단 활동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의 일본군 헌병대와 총영사관이 독립운동자 탄압에 광분하자, 이에 편승한 밀정의 암약과 노골적 친일분자의 등장으로 상해 한 인사의 기류도 다소 혼탁해졌다. 그러나 몇몇 의열단체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밀정과 친일·부일배 숙청에 힘을 쏟았다.

먼저 남화한인청년연맹이 鄭華岩을 중심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1932년 7월에 延忠烈과 李圭瑞를, 1933년 5월에는 李鍾洪을 吳冕植·李達 등이 교살 처단했다. 또한 1933년 8월에는 친일거부 玉觀彬을, 12월에는 프랑스조계 공부국 형사의 지위를 악용해 온 玉成彬을, 1935년 3월에는 조선인거류민회 부회장인 周李容魯를, 모두 嚴亨淳(嚴舜奉)의 주도로 사살 처단했다.¹⁷⁾

병인의용대도 1933년에 조직을 정비한 후 밀정 또는 그 혐의자의 숙청 작

15) 蔡根植, 《武將獨立運動秘史》(大韓民國公報處, 1949), 188~189쪽.

金承學, 《韓國獨立史》(獨立文化史, 1967), 414~415쪽.

16) 朴永錫, 〈南慈賢義士의 民族獨立運動〉(《韓國學研究》2-別冊, 淑明女大, 1991), 130~131쪽.

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822~840쪽.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編, 앞의 책, 348~364쪽.

업을 재개하여, 1935년까지 사이에 石鉉九·金元泰·李泰瑞를 사살하고 柳寅發에게 중상을 입혔다.¹⁸⁾ 의열단원 김시현과 盧乙龍도 1935년에 북경에서 부일배들을 처단하였다.¹⁹⁾

5)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의열투쟁

1930년 상해에서 건립된 韓國獨立黨은 ‘민중적 반항과 무력적 파괴’를 당책의 하나로 내걸고 의열투쟁의 실행에도 역점을 두려 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독립당 특무대원 겸 병인의용대원인 康秉學은 1934년 3월 3일 상해전쟁시의 일본군 전몰자 초혼식이 열리고 있는 홍구공원 神社에 폭탄을 던졌다.²⁰⁾ 폭탄의 불발로 인해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불퇴전의 항일투지를 재차 과시한 제2의 홍구공원 의거인 것이었다.

1935년에 창건된 民族革命黨은 “반동분자 및 일·만 요인의 암살과 철도·관공서 파괴 공작”을 수행할 특무부를 두었으며, 수차에 걸쳐 수십 명의 부원들을 화북과 만주로 밀파하였다.²¹⁾ 또한 서기장 김원봉과 훈련부장 尹世晷는 상해의 변화가 세 곳에 폭발사건을 일으켜 중국인의 배일시위를 촉발할 목적으로 1936년 8월에 당원 2명에게 폭탄 제조를 지시했는데, 제조 중인 폭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거사는 실행치 못하였다.²²⁾

6) 국내 의열투쟁의 불연속성과 지구성

1927년 장진홍의 의거 이후로 국내에서는 의열투쟁의 사례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1929년 4월에 비행학교 설립 기금 마련차 중국에서 귀국한 共明團²³⁾ 단장 崔養玉 등 3인이 서울 망우리에서 경춘간 우편차를 습격해서 거

18)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4(1969), 720~723쪽.

19) 社會問題資料研究會 編, 《思想情勢視察報告集》 3(京都: 東洋文化社, 1976), 21쪽.

20)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I, 518~519쪽.

21) 강만길,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화평사, 1991), 99~102쪽.

22)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II, 578쪽.

23) 지금까지는 ‘共鳴團’으로 표기되어 왔으나, 최양옥이 피체되었을 때 ‘울 鳴字’가

액의 현금을 탈취한 후 잠적했으나 군경의 추격을 받고 피체된²⁴⁾ 사건과, 1935년 겨울에 서울의 양조장 종업원 曹安得이 친구 5명과 함께 폭탄을 만들어 총독 폭살을 두 번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다시 기회를 엿보던 중 전원 피체된²⁵⁾ 사건을 꼽을 수 있을 따름이다.²⁶⁾

이는 1930년대 들어 일제의 사회통제가 갈수록 강화되는데다 국내 운동조직들은 노동자·농민 중심의 대중투쟁 진작을 위한 지하활동에만 주력했지 의열거사의 운동방식에는 좀처럼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로는 주민생활과 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파쇼적 탄압이 극악해져서, 국내 민중이나 지식인층 모두 고난과 형극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의열투쟁의 준비나 기도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국외 독립운동진영도 1930년대 후반기부터는 조직적 무장대오의 확립과 군사력의 확충을 통하여 독립전쟁 준비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간 반면, 종래의 의열투쟁노선은 방기되었다.

이리하여 의열투쟁의 맥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의열투쟁의 시도나 기운까지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다. 의열투쟁은 오히려 예기치 못한 시점에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1943년 초여름 국내의 일제 요인과 친일파 차단, 관공서 및 형무소 습격, 군사시설 및 군수산업체 파괴 등을 활동목표로 삼은 비밀결사 朝鮮民族解放協同黨이 일본 동경에서 결성되었다. 유학생 金鍾柏 등이 중심이 된 이 조직은 1944년 봄에 국내로 본거를 옮겨 경성에 비밀 아지트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에 유격전 거점을 구축하고, 300여 명의 무장행동대를 훈련시킴과 동시에 고관과 친일파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폭발물을 구입하는 등 봉기와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비밀 누설로 그 해 11월에 관련자 120여 명이 대

아니라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하므로 ‘共明團’으로 적는다.

24) 《東亞日報》, 1929년 4월 22일.

김용국 외, 《독립운동사》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674~676쪽.

25) 김용국 외, 《遺芳集》(亞細亞文化社, 1992), 802~803쪽.

26) 1929년 원산에서 金壽岳 등 세 소년이 爆彈起義하여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보이나(趙素昂, 《遺芳集》, 亞細亞文化社, 1992, 81쪽),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불확실하다.

거 피검되면서 계획의 실현은 좌절되었다.²⁷⁾

일제가 단말마의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던 때인 1945년 7월 24일 일제 강점기 최후의 폭탄거사가 柳萬秀·趙文起·康潤國에 의해 京城府民館에서 결행되었다. 폭력배 출신의 일제주구 朴春琴이 항일·반전사상의 격파를 목적으로 급조한 大義黨이 일본과 만주국, 친일 남경정권 대표들을 초치하여 아시아민족분격대회라는 선전극을 개최함에, 세 청년이 직접 제조한 도화선식 폭탄을 행사장인 무민관 내 두 곳에 미리 장치하여 폭발시킨 것이다.²⁸⁾ 총독과 조선군사령관 폭살이라는 원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일제 고관과 괴뢰정권 대표들을 혼비백산하게 하고 한민족의 끈질긴 항일 의지와 독립열망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시켜 준 쾌거였다. 이로써 항일 민족의열투쟁사의 종장은 멋지게 장식되면서 큰 매듭을 지었다.

〈金榮範〉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일제의 한반도 강점기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식민지체제를 완강히 거부하며 완전독립의 성취를 위해 줄기차게 싸웠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강도 높았고 일제에 가한 타격이 가장 컸으며 민중의 지지와 호응도 만세시위 못지 않게 가장 많이 받았던 대일항쟁 방식이 의열투쟁이었다. 독립운동에서 의열투쟁의 비중과 의의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의열투쟁은 일제 타도와 민족독립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일제기관 파괴, 일제 요인 암살, 친일파 및 밀정·부일배 처단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런 활동에 의해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군사적·사회적·산업경제적 기반에 두루 타격을 가하고 붕괴를 촉진하였다. 동시에 안으로는 민족성원들의 항일·반제의 투지와 독립의지를 크게 고취하고 선양하자는 것이 그 의도였다.

27) 金大商, 《解放直前史의 再照明》(해성출판사, 1990), 177~182쪽.

28) 金용국 외, 앞의 책, 805~811쪽.

독립운동에 동원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었고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자는 것이 의열투쟁의 취지였다.

그리하여 진작에 임시정부가 ‘7가살’로 정리했고 의열단이 ‘5가살’ 및 ‘5當破’ 범주로 압축시켜 제시한 바 있는 구체적 표적들에 대하여, 단체 차원의 기획과 집단적 실행, 단체기획과 개인 단독실행, 개인 차원의 기획과 개인 단독실행이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공격거사를 실천하였다. 그 행로에는 전업적 독립운동가뿐 아니라 농민·노동자·광부·점원·학생·교사·유학자·종교인·면서기, 심지어 경찰요원까지 다양한 계층·신분 배경의 인물들이 참여했다.

의열투쟁의 무대는 국내외였는데, 국내에서는 특히 서울과 서북지방 일대, 일본에서는 동경의 왕궁과 경시청 앞 등에서, 중국에서는 상해·북경·천진 등 관내의 큰 도시와 만주의 주요 도시들이 주무대가 되었다. 일제의 정치·군사기관이 밀집해 있거나 경찰력이 대거 포진해 있는 곳에 의열투쟁의 맹목이 가해진 것이다. 시기별로 보면, 3·1운동 직후에는 국내외 연계에 의해 국내를 중심무대로 하여 전개되다가 국외로도 투쟁공간이 점점 확장되어, 1920년대에는 국내외로 무대를 넓히게 되면서 국외 거점 단체들이 주도를 했고, 1930년대에는 해외지역 중심의 전개양상이 확연해졌다. 그러다가 일제 말에는 다시 국내로 그 무대가 이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는 임시정부와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거사도 적지 않았지만, 3·1운동 직후부터 적어도 30년대 초반까지는 임시정부의 주도·지원·개입에 의해 행해진 거사가 많았다. 임시정부는 의열투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뒷받침해 주었다.

의열투쟁의 주된 내용을 이룬 대소 거사들은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난 경우가 더 많았음이 사실이다. 계획 또는 추진 단계에서 중도 좌절된 경우나, 실행은 되었지만 목표를 성취하지는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공한 거사였지만 파괴력은 미미했고 그 효력이 기대에 훨씬 못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결과였으며, 비록 실패한 거사들의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심리적 효과는 매우 컸다. 자기희생 감수의 태세로 추

진되고 감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반일정서와 항일의지가 그때그때 환기·고취되면서 일정 수위로 유지되는 효과가 발해졌고, 독립운동의 다른 부문들에 대해 자극제도 되었다. 따라서 의열거사나 의열적 행동들은 소기의 목표 달성 여부나 성패를 떠나서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띠었던 의열투쟁의 행위양식을 단지 형태론적으로만 고찰하여 ‘테러리즘’으로 규정짓고 격하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발생론적 견지에서 보건대 그것은 전적으로 민족사적·세계사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로부터 비롯된 행위양식이었다. 사회경제적 수탈의 극대화와 민족말살을 노리고서 자행된 일제의 한국침략과 식민통치가 20세기의 역사적 불의의 한 극치였다면, 한국민족은 그 불의에 맞서서 정의의 투쟁을 끊임 없이 치열하게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독특한 역사적 의의를 들면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제의 침략-강점-식민통치와 기만적 지배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경고·응징의 의미를 띠고서 행해졌다.

둘째, 밖으로는 민족독립 완성의 의지를 부단히 표출하고 안으로는 일제 타도와 독립 달성의 희망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독립운동의 견고한 보루요 배후지로 기능했다.

셋째, 적은 비용으로도 적에게 큰 타격과 손실을 입힘으로써, 결전기가 아닌 장기대치 국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방법이 되었다. 그래서 일제는 의열투쟁을 가장 두려워했고, 대처하기가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

넷째, 독립군 무력투쟁을 견인하고 보조하면서 그것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독립운동 역량 축적의 밑거름이 되었다. 적어도 1920년대 초와 1930년대 초의 의열투쟁은 일제 식민통치의 기반을 뒤흔들고 그것에 기생하는 세력에게는 심대한 위협요소가 됨으로써, 국내외 독립운동 발전의 호조건을 조성해 주었다.

다섯째, 독립운동의 난국 타개와 침체국면 탈출의 지렛대요 주된 계기로 작용했다. 한인에국단의 의거들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재인식과 중국측의 지원을 끌어내는 결정적 전기를 제공했듯이, 의열투쟁은 독립운동이 침체와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웅비케 하는 활력소요 생명수로 기능한 바 컸다.

여섯째, 절대독립을 추구하는 한국민족의 열망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인식시킴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많이 남겼다.

일곱째, 제국주의지배에 맞서서 민족자존의 유구한 전통과 민족동질성을 되살리고 수호하려는 대열의 최선봉에 섰으로써, 민족정기의 보전 및 재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중요 인자가 되었다.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이러한 정향은 해방 후의 군사독재와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저항하여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제단에 몸을 바친 열사들의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金榮範〉

찾아보기

[가]

- 간도지방불령선인초토계획 間島地方不逞
鮮人剿討計劃 221
- 간민회 墾民會 200, 202
- 간접세 間接稅 83
- 감사대 敢死隊 321
- 갑자구락부 甲子俱樂部 52
- 강경선 姜景善 181
- 강구년 康龜年 332
- 강남공사 江南公司 131
- 강대현 姜大鉉 115~117, 119, 120
- 강도천 姜道天 205
- 강병학 康秉學 350
- 강봉거 姜鳳舉 205
- 강상모 姜尙模 219
- 강성리 康聲利 329
- 강우규 姜宇奎 324
- 강윤국 康潤國 352
- 강창대 姜昌大 227
- 강창제 姜昌濟 340
- 개인대금업 個人貸金業 98, 99
- 개인본위조직론 個人本位組織論 305
- 개조파 改造派 143, 153~160, 164~
166, 173
- 거류민단 居留民團 11
- 〈경고동포문〉 〈警告同胞文〉 155
- 경남은행 慶南銀行 89, 92
- 경무총감부 警務總監部 25
- 경상합동은행 慶尙合同銀行 92
- 경성독립단본부 京城獨立團本部 115,
117, 119
- 경성부민관 京城府民館 352
- 《경성일보》 《京城日報》 33, 51
- 경성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5
- 경신참변 庚申慘變 6, 11, 244, 245,
248
- 경종법 耕種法 60, 61
- 계봉우 桂奉瑀 6, 135, 252
- 계화 桂和 202
- 고동하곡전투 古洞河谷戰鬪 234, 237,
238, 240
- 고려공산당 高麗共產黨 333, 334
- 고려군정의회 高麗軍政義會 253~
256
- 고려혁명당 高麗革命黨 12
- 고리대금업 高利貸金業 97
- 고마령전투 古馬嶺戰鬪 278
- 고무신제조업 74
- 고무製品製造業 72
- 고본계 固本契 281, 282
- 고이허 高而虛 313
- 고준택 高俊澤 340
- 고활신 高豁信 267, 301~313
- 공교회 孔教會 203, 206
- 공남해 孔南海 130
- 공명단 共明團 9, 350
- 공장제수공업 工場制手工業 76
- 공화만세 共和萬歲 109
- 공화주의 共和主義 106, 107
- 곽헌 郭憲 194
- 관동군 關東軍 222, 247, 334
- 관동대지진 關東大地震 32, 79, 93,
335
- 관전동로한교민단 寬甸東路韓僑民團 261
- 광둥군관학교 廣東軍官學校 272
- 광동촉성회 廣東促成會 182, 183

- (대한)광복군 (大韓)光復軍 10, 105, 138, 210, 253
광복군총영 光復軍總營 138, 200, 209, 210, 330
광복단 光復團 200, 211, 223
광정단 匡正團 283
광한단 光韓團 260
교통국 交通局 11, 128, 321
교풍회 矯風會 52
‘9·18사변’(만주사변) ‘九·一八事變’(滿洲事變) 341
구국모험단 救國冒險團 320
구미위원부 歐美委員部 134
구연수 具然壽 49, 53
구연흥 具然欽 194
구춘선 具春善 139, 203
국내진입(작)전 國內進入(作)戰 208, 214~216, 224, 227, 239, 265, 276, 278, 296
〈국무원유고문〉 〈國務院諭告文〉 124
국민군단 國民軍團 280
국민대표회(의) 國民代表會(議) 11, 140, 142~144, 146~167, 169, 171, 173, 279, 299
국민대표회기성회 國民代表會期成會 142
국민대회 國民大會 108, 109, 113, 115, 117
국민부 國民府 7, 313
국민의회 國民議會 10, 320
국민협회 國民協會 52, 341
국민회(의) 國民會(議) 54, 327
국수회 國粹會 341
국제연맹 國際聯盟 104, 125, 127, 133
군무도독부 軍務都督府 218, 200, 203, 207, 226, 241, 242, 253
군사사단 軍士私團 136
군사통일회(의) 軍事統一會(議) 260, 280
군자금 軍資金 24
군정과 軍政派 297, 298, 309, 311
군정회 軍政會 201
권업회 勸業會 105
극동인민대표회의 極東人民代表會議 143, 171, 172
금속공업 金屬工業 72
금속공장 金屬工場 72
금속기계공업 金屬機械工業 77
금융공황 金融恐慌 84
금융조합 金融組合 83, 85, 87, 91, 93~97
〈금융조합령〉 〈金融組合令〉 93, 96
금융조합연합회 金融組合聯合會 84, 87, 93, 95
금은세공업 金銀細工業 72
기계기구공업 機械器具工業 72
기독교 基督教 48
기름제조業 72
기산도 奇山度 317
기호파 畿湖派 143, 145, 151, 161
길림주민회 吉林住民會 282
길흥학교 吉興學校 300
김갑 金甲 155, 180
김갑순 金甲淳 52
김경보 金敬甫 290
김관성 金觀聲 260
김광선 金光善 340
김광희 金光照 53
김구 金九 145, 161, 180, 194, 336, 343
김규면 金奎冕 206
김규식 金奎植 11, 111, 118, 125, 147, 202, 242
김기진 金基鎭 187
김달하 金達河 336
김대락 金大洛 1
김도순 金道淳 339
김돈 金墩 298, 309
김동삼 金東三 7, 11, 118, 141, 153, 154, 158, 207, 279, 281, 289, 304
김동순 金東淳 330
김동식 金東植 326
김동준 金東俊 209

김두봉	金斗奉	181, 184, 186, 194	김인전	金仁全	147
김두섭	金斗燮	266	김일주	金一柱	184, 186
김립	金立	118, 249	김재진	金在震	334
김만겸	金萬謙	143	김정익	金鼎益	209
김만수	金萬秀	337	김종백	金鍾柏	351
김명봉	金鳴鳳	269	김종상	金鍾商	175
김명준	金明濬	52	김좌진	金佐鎭	139, 202, 215, 226, 227, 229, 234, 235, 240, 251, 291~293, 297, 298
김병선	金丙善	332	김지섭	金祉燮	9, 335
김병현	金秉憲	339	김진	金震	252
김보연	金甫淵	151, 175	김찬	金燦	172, 209
김봉	金鳳	290	김찬성	金贊聖	210
김봉규	金琿奎	325	김창곤	金昌坤	210
김사국	金思國	108	김창빈	金昌彬	326
김사실	金士實	342	김창숙	金昌淑	336
김상옥	金相玉	9, 330, 333	김창의	金昌義	267
김생	金生	179	김창환	金昌煥	242
김석영	金錫永	52	김철	金澈	111
김석하	金錫河	338	김철	金鐵	282
김석황	金錫璜	138, 326	김철수	金綴洙	153
김성극	金星極	203, 206	김철훈	金哲勳	249
김성륜	金聖倫	206	金표토르	250	
김성수	金性洙	50	김하석	金河錫	253
김성숙	金星淑	184	김혁	金赫	291, 292, 297, 309
김소하	金篠厦	310	김홍국	金弘國	202
김승만	金承萬	210	김홍식	金鴻植	109
김승학	金承學	209, 210, 310	김홍일	金弘壹	345
김시현	金始顯	334	김효록	金孝錄	331
김영선	金營善	205	김훈	金勳	230
김영한	金榮漢	53	김흥건	金興健	53
김예진	金禮鎭	331			
김우희	金宇希	158			
김원봉	金元鳳	9, 325, 343, 350			
김원상	金元常	268			
김원식(김형선)	金元植(金炯善)	194,			
304					
김유인	金裕寅	108~110, 113	나석주	羅錫疇	336
김윤정	金潤晶	49	나일봉	羅一鳳	53
김응섭	金應燮	7, 302	나중소	羅仲昭	226
김이직	金利稷	247	나창현	羅昌憲	339
김익상	金益相	9, 333	나철	羅喆	317
			남경축성회	南京促成會	184
			남극	南極	292, 297

남만주철도 南滿洲鐵道 334
 남만주철도주식회사 南滿洲鐵道株式會社 80, 81
 남만통일회 南滿統一會 260
 남만한족통일회의 南滿韓族統一會議 261
 남만혁명동지연석회의 南滿革命同志聯席會議 303
 남북면업주식회사 南北綿業株式會社 70
 남북청년단체대표협의회 南北靑年團體代表協議會 189
 남성극 南星極 291
 남자현 南慈賢 349
 남한대토벌작전 南韓大討伐作戰 248
 남화한인청년연맹 南華韓靑年聯盟 9, 348, 349
 내선융화 內鮮融和 30
 내선일체 內鮮一體 22, 30, 49
 노구치 野口 69
 노백린 盧伯麟 148, 150, 155, 159, 160
 노을룡 盧乙龍 350
 노인동맹단 老人同盟團 324
 농무계 農務契 208
 농민단 農民團 332

[ㄷ]

다나카 기이치 田中義一 333
 다물단 多勿團 9
 대구은행 大邱銀行 89, 92
 대금업 貸金業 97, 98
 대금회사 貸金會社 98
 대당결성 大黨結成 174, 175, 191
 대독립당 大獨立黨 174, 177, 185
 대독립당조직광동총성회 大獨立黨組織廣東促成會 184
 대독립당조직북경총성회 大獨立黨組織北京促成會 177, 300
 <대동단결선언> <大同團結宣言> 106, 107
 대동동지회 大東同志會 52, 53

대동사문회 大東斯文會 52
 대의당 大義黨 352
 대정친목회 大正親睦會 52
 대조선공화국 大朝鮮共和國 10
 대조선독립보합단 大朝鮮獨立普合團 326
 대조선청년결사대 大朝鮮靑年決死隊 326
 대중교 大宗教 201
 대중소비재 大衆消費財 71
 대중적 협동전선론 大衆的 協同戰線論 183
 대통령불신임안 大統領不信任案 151
 대한광복군사령부 大韓光復軍司令部 326, 337
 대한광복군영 大韓光復軍營 261
 대한광복군정부 大韓光復軍政府 105, 106
 대한광복군총영 大韓光復軍總營 6, 261
 대한광복단 大韓光復團 200, 206, 227, 240
 대한광복회 大韓光復會 1, 6, 8, 9, 318
 대한국민군 大韓國民軍 200, 202, 203, 223, 224, 226~228, 240, 242, 251, 254
 대한국민(의)회 大韓國民(議)會 118, 122~124, 132, 135, 139, 140, 143, 165, 200, 224, 226, 252
 대한군무도독부 大韓軍務都督府 203
 대한군정서 大韓軍政署 200~223, 226, 229, 231~235, 237, 238, 240, 242, 244, 245, 251, 253, 291
 대한독립군 大韓獨立軍 6, 136, 204, 200, 203, 204, 218, 223, 224, 226, 227, 242, 251
 대한독립군단 大韓獨立軍團 6, 242, 251, 291
 대한독립군비단 大韓獨立軍備團 209
 대한독립군정부 大韓獨立軍政府 280
 대한독립단 大韓獨立團 200, 208, 210, 251, 260, 266, 267, 282, 323
 대한독립임시군정부 大韓獨立臨時軍政

- 府 329
 대한독립청년단 大韓獨立靑年團 132
 대한민국 大韓民國 119
 〈대한민국 임시헌법〉 〈大韓民國 臨時憲法〉 157
 〈대한민국육군임시관제〉 〈大韓民國陸軍 臨時官制〉 136, 137
 〈대한민국임시관제〉 〈大韓民國臨時官制〉 136
 대한민국임시정부 大韓民國臨時政府 3, 10, 52, 124~127, 140, 268, 269, 279, 282
 대한민단 大韓民團 139
 대한민족자결국민회 大韓民族自決國民會 327
 대한북로독군부 大韓北路督軍部 203, 204, 226
 대한신민단 大韓新民團 200, 206, 227, 242
 대한의군부 大韓義軍府 200, 205, 227, 240~242, 253, 267
 대한의군산포대 大韓義軍山砲隊 205
 대한의군전위대 大韓義軍前衛隊 205
 대한의민단 大韓義民團 206, 227, 228, 240
 대한인국민회 大韓人國民會 105, 147
 대한정의군영 大韓正義軍營 261
 대한정의군정사 大韓正義軍政司 200, 211
 대한제국 大韓帝國 1, 43, 45, 106, 119, 265, 318
 대한천일은행 大韓天一銀行 93
 대한청년단연합회 大韓靑年團聯合會 138, 209, 210
 대한총군부 大韓總軍府 241, 251
 대한통군부 大韓統軍府 261
 대한통의부 大韓統義府 269, 337
 대혁명당 大革命黨 175, 178, 179
 도시금융조합 都市金融組合 93, 95
 도시조합 都市組合 96
 도열병 稻熱病 64
 〈도지방비령〉 〈道地方費令〉 35
 독고악 獨孤岳 298
 〈독립공고서〉 〈獨立控告書〉 125
 독립군 獨立軍 5~7, 13, 14, 137, 212~217, 219, 220, 222, 225, 226, 229~233, 237, 238, 240, 241, 244, 253, 259, 260, 269, 271, 273, 274, 295, 337, 354
 〈독립군가〉 〈獨立軍歌〉 212
 독립단 결사대 獨立團 決死隊 327
 〈독립당촉성운동선언〉 〈獨立黨促成運動宣言〉 181
 〈독립선언서〉 〈獨立宣言書〉 111
 독립시기상조론 獨立時機尙早論 54
 《독립신문》 《獨立新聞》 132, 135, 145, 161, 166, 179, 219, 236
 《독립신보》 《獨立新報》 115, 117
 독립운동촉성회 獨立運動促成會 174
 독립임시사무소 獨立臨時事務所 119
 독립전쟁(론) 獨立戰爭(論) 13, 105, 106, 130, 135, 136, 143, 200, 201, 212, 220, 239, 244
 독점적 자본주의체제 獨占的 資本主義 體制 103
 독관부(진동도독부) 督辦府(鎭東都督府) 271
 동도군정서 東道軍政署 139, 226
 동도독군부 東道督軍府 226
 동도독립군서 東道獨立軍署 139
 동래은행 東萊銀行 89
 동명중학 東明中學 288
 《동아일보》 《東亞日報》 5, 58, 60, 97
 동양제사주식회사 東洋製絲株式會社 70
 동양척식주식회사 東洋拓殖株式會社 65, 83, 84, 336
 동우회 同友會 52
 동화병원 東華病院 273
 동화주의 同化主義 30
 동흥병원 東興病院 273

[ㄷ]

러일전쟁 露日戰爭 55
로이드 Lloyd George 125

[ㄹ]

만보산사건 萬寶山事件 346
매국노 賣國奴 48
매관자본 買辦資本 74
맹철호 孟喆鎬 282
메리야스(工)業 74, 76, 78
면직물공장 綿織物工場 72
면협의회 面協議會 35, 40
모범부락정책 模範部落政策 41, 42
모험대 冒險隊 227, 326
무관학교 武官學校 137, 226, 296
무단통치 武斷統治 4, 18
무정부주의 無政府主義 9, 14, 167
무진강 無盡講 97, 98
무진업 無盡業 97
무진회사 無盡會社 98
문명개화론자 文明開化論者 46
문상직 文相直 323
문시환 文時煥 156
문우천 文字天 293
문일민 文一民 331
문창범 文昌範 116, 118
문화정치 文化政治 2, 4, 17, 18, 28, 56, 78, 79
문화통치 文化統治 33
물산장려운동 物産獎勵運動 3, 60
미쓰이 三井 69
미일전쟁설 美日戰爭說 105, 134
미즈노 렌타로 水野練太郎 18, 26, 49, 324
민강 閔樞 108, 109
민국독립단 民國獨立團 209
민대식 閔大植 50

민생단(사건) 民生團(事件) 7, 8
민영환 閔泳煥 8
민원식 閔元植 31, 341
민응식 閔應植 50
민정과 民政派 297, 298, 309
민족개량주의 民族改良主義 54, 170
민족개조론 民族改造論 170
민족단일당(론) 民族單一黨(論) 183, 185
민족대당결성촉성회 民族大黨結成促成會 12
민족대당운동 民族大黨運動 7, 12
민족대표 民族代表 104
민족대표 33인 民族代表 三三人 110
민족동화정책 民族同化政策 3
민족유일당 民族唯一黨 176, 300, 302~305, 307, 308, 340
민족유일당운동 民族唯一黨運動 7, 168, 299, 306, 310, 314
민족유일당재만족성동맹 民族唯一黨在滿促成同盟 307
민족유일당조직동맹 民族唯一黨組織同盟 312
민족유일당회의 民族唯一黨會議 312
민족유일협동전선당 民族唯一協同戰線黨 307
민족자결주의 民族自決主義 104
민족자본 民族資本 73, 74, 77
〈민족적 경륜〉 〈民族的 經綸〉 2
민족좌파세력 民族左派勢力 173
민족차별주의 民族差別主義 37
민족통일전선(운동) 民族統一戰線(運動) 168
민족혁명당 民族革命黨 9, 174, 350
민족협동전선(론) 民族協同戰線(論) 170~173, 177
민족협동전선운동 民族協同戰線運動 168
민충식 閔忠植 150, 151
민흥식 閔興植 48
밀양폭탄사건 密陽爆彈事件 330

[바]

박건병 朴健秉 158, 186
 박건웅 朴建雄 184
 박관해 朴觀海 280, 296
 박대호 朴大浩 312
 박두희 朴斗熙 291, 293
 박병길 朴秉吉 251
 박봉주 朴鳳柱 52
 박성진 朴性鎬 292
 박승엽 朴承燁 325
 박시원 朴施源 203
 박애 朴愛 252
 박열 朴烈 334
 박영 朴英 203
 박영호 朴泳孝 48, 50
 박완삼 朴完三 153
 박용만 朴容萬 105, 141, 143, 147, 260, 280
 박은식 朴殷植 11, 141, 162, 171, 175, 246
 박응백 朴應伯 268
 바일리아 252~254
 박장호 朴長浩 200, 208, 209
 박재혁 朴載赫 325
 박제건 朴濟乾 339
 박진순 朴鎭淳 249
 박창은 朴昌殷 252, 253
 박춘근 朴春根 159
 박춘금 朴春琴 50, 352
 박치의 朴治毅 331
 박치익 朴治翼 208
 박태열 朴泰烈 331
 박희도 朴熙道 110
 반제협동전선론 反帝協同戰線論 183
 방우룡 方雨龍 207
 방직공업 紡織工業 70, 72
 방태영 方台榮 48
 배천택 裴天澤 153, 158, 186

배활산 裴活山 306
 백산무사단 白山武士團 211
 백삼규 白三圭 200, 208, 209
 백서농장군영 白西農莊軍營 6
 백완혁 白完赫 50
 백운평 전투 白雲坪戰鬪 228, 231, 237, 238
 백정기 白貞基 348
 백종열 白鍾烈 293
 벽창의용단 碧昌義勇團 337
 변장성 邊長城 187
 변창근 邊昌根 210
 병인의용대 丙寅義勇隊 9, 340, 350
 보민회 保民會 52, 221, 337
 보부상 褓負商 53
 보성전문학교 普成專門學校 108
 보신각 普信閣 109
 보약사 保約社 208
 보존파 保存派 11
 보통경찰제(도) 普通警察制(度) 18, 20, 22~25, 27, 28, 78
 보통은행 普通銀行 83
 보험대 保險隊 273
 복황단 復皇團 211
 봉오동승첩 鳳梧洞勝捷 219, 220, 223, 227, 239
 부민단 扶民團 200, 207
 부산상업은행 釜山商業銀行 89
 부여족통일회의 夫餘族統一會議 291
 부협의회 府協議會 35
 북경군사통일회 北京軍事統一會 143
 북경촉성회 北京促成會 178, 179, 184
 북로군정서 北路軍政署 6, 139, 147, 298, 330
 북로정일제일군사령부장 北路征日第一軍司令部長 204
 북만주민대회 北滿住民大會 299
 북만한인교육대회 北滿韓人教育大會 294
 비밀독립운동본부 秘密獨立運動本部 108
 빈주사건 賓州事件 298, 299

【八】

- 사관연성소 士官鍊成所 202, 213, 223, 226, 230
- 사이토 마코토 齋藤實 4, 18, 22, 26, 29, 31, 32, 34, 45, 46, 48~50, 53, 277, 324, 341
- 〈사찰령〉 〈寺刹令〉 47
- 사할린의용대 사할린義勇隊 254
- 사회주의 社會主義 167, 172, 181
- 사회주의혁명 社會主義革命 103
- 사회진화론 社會進化論 1
- 삼미증식(갱신)계획 產米增殖(更新)計劃 4, 60~64, 66, 79, 80, 83, 86, 88
- 3·1운동 三·一運動 1, 2, 4, 6, 8, 10, 11, 13, 18, 19, 22, 23, 31, 34, 40, 42, 45, 49, 51, 104, 105, 107, 110~112, 117, 136, 147, 164, 199~202, 207, 211, 212, 215, 239, 248, 318, 319, 322~324, 349, 353
- 삼남은행 三南銀行 89, 92
- 삼둔자전투 三屯子戰鬪 216, 217
- 삼방회의 三方會議 153, 160, 161
- 3부 통일운동 三府 統一運動 299
- 삼성학교 三成學校 247
- 〈삼시협정〉 〈三矢協定〉 274, 275, 278
- 삼일당 三一黨 180
- 상무사 商務社 52, 53
- 상애회 相愛會 52
- 상업은행 商業銀行 90
- 상조계 相助契 290
- 《상해시보》 《上海時報》 110, 219
- 상해청년회 上海青年會 187
- 상해촉성회 上海促成會 181
- 상해파 上海派 249, 252~254, 256
- 상해파 고려공산당 上海派 高麗共產黨 143, 161
- 상해한인청년회 上海韓人青年會 180
- 서광헌 徐光憲 332
- 서대우 徐大宇 175
- 서로군정서 西路軍政署 6, 139, 143, 158, 200, 207, 208, 240, 242, 260, 261, 337
- 서범선 徐範善 260
- 서북파 西北派 143, 161
- 서일 徐一 6, 139, 201, 238, 242
- 선민부 鮮民府 278
- 선우금순 鮮于金筍 48
- 선우혁 鮮于燦 111
- 선유봉 仙遊峰 325
- 성동사관학교 城東士官學校 293, 339
- 성흥학교 城興學校 304
- 세계 자본주의체제 世界 資本主義體制 103
- 소비세 消費稅 82, 83
- 소작인 상조회 小作人 相助會 52
- 소작쟁의 小作爭議 42
- 손기업 孫基業 349
- 손두환 孫斗煥 123, 152
- 손일민 孫一民 280
- 손정도 孫貞道 119, 147, 148, 152, 160, 326
- 송병조 宋秉祚 175
- 송병준 宋秉峻 48
- 송학선 宋學先 341, 342
- 수리조합 水利組合 87
- 수리조합사업 水利組合事業 64, 65
- 시사연구회 時事研究會 302
- 시중회 時中會 2
- 식산은행 殖産銀行 65, 83, 85~87, 90, 91, 93
- 신간회 新幹會 12, 32, 168, 183
- 신규식 申圭植 111, 134, 145~148
- 《신도》 《新道》 186
- 신민 新民 308
- 신민단 新民團 218, 223, 227, 228, 241
- 《신민보》 《新民報》 295
- 신민부 新民府 7, 291, 294, 296~298, 304, 306, 307~311, 313, 314, 338
- 신민회 新民會 129

신석린 申錫麟 48, 50
 신석우 申錫雨 52, 111, 118, 119
 신숙 申肅 116, 143, 147, 158, 160, 260, 280, 304
 신용사업 信用事業 96
 신이진 申二鎭 158
 신익희 申翼熙 147, 149, 152, 330
 신일용 辛日鎔 312, 313
 신일헌 申日憲 205
 신채호 申采浩 8, 9, 336
 신한민국정부 新韓民國政府 113, 115, 117
 《신한민보》 《新韓民報》 175
 신한청년당 新韓靑年黨 111, 118, 125
 신한촌 新韓村 122, 124, 247
 신한혁명당 新韓革命黨 12, 106
 신흥무관학교 新興武官學校 207, 213
 신흥학교 新興學校 207
 신흥학교 학우단 新興學校 學友團 323
 실력양성론 實力養成論 1, 14, 170
 심용준 沈龍俊 312
 쌀소동 米騷動 60

[ㅇ]

아카이케 아즈시 赤池濃 23, 26
 안경신 安敬信 331
 안공근 安恭根 344
 안광천 安光泉 191
 안무 安武 203, 215, 223, 226, 227, 254
 안병찬 安秉贊 210
 안상덕 安商惠 108, 112
 안세환 安世桓 110
 안정근 安定根 139, 152
 안중근 安重根 8, 9, 317, 341
 안창호 安昌浩 11, 115, 122, 123, 128, 129, 134~136, 138, 140, 141, 143, 147, 153, 154, 156, 158, 160, 174~178, 180, 194, 214, 300, 301

안태국 安泰國 323
 암살단 暗殺團 330
 애국계몽운동 愛國啓蒙運動 266
 애국부인회 愛國婦人會 137
 야단 野團 211
 양근환 梁權煥 52, 341
 양기탁 梁起鐸 7, 12, 266, 267, 280
 양말생산조합 洋襪生産組合 74
 양승우 楊承雨 337
 양조업 釀造業 77
 양한위 梁韓緯 329
 양현경 梁玄卿 209
 어담 魚潭 49
 어량사 漁郎社 232
 엄주필 嚴周必 247
 엄형순 嚴亨淳 349
 여운형 呂運亨 118, 135, 142, 147, 158, 167, 172, 173
 여준 呂準 141, 207
 여행대 旅行隊 223, 226
 여행렬 呂行烈 331
 연초세 煙草稅 82
 〈연초세령〉 〈煙草稅令〉 75
 연초업 煙草業 75
 〈연초전매령〉 〈煙草專賣令〉 79
 연통부 聯通府 11, 128
 연통제 聯通制 125, 128, 131, 321
 염상한 廉相漢 332
 예종석 芮宗錫 50
 5가살 五可殺 353
 오광선 吳光鮮 208, 242
 오기호 吳基鎬 317
 5당파 五當破 353
 오동진 吳東振 210, 303, 338
 오면직 吳冕植 349
 오상세 吳詳世 293
 오성륜 吳成崙 9, 333
 오영선 吳永善 150, 152, 155, 174
 오주혁 吳周赫 205
 오창환 吳昌煥 153, 158

- 오태환 吳台煥 49
 오하목 吳夏默 249, 250, 252~254
 옥관빈 玉觀彬 349
 옥성빈 玉成彬 349
 완루구전투 完樓溝戰鬪 231
 왕정위 汪精衛 348
 외업부 外業部 77
 우가키 가즈시케 宇垣一成 346
 우덕선 禹德善 331
 원세개 袁世凱 103
 원세훈 元世勳 11, 122, 141, 154, 177, 178, 300, 301
 월강추격대대 越江追擊大隊 217
 유광홀 劉光屹 313
 유기문 柳基文 348
 유기석 柳基石 348
 유기제조업 鑰器製造業 72
 유도진흥회 儒道振興會 53, 54
 유동열 柳東悅 253, 325
 유만수 柳萬秀 352
 유민회 維民會 52~54, 58
 유인석 柳麟錫 200, 267
 유일당 唯一黨 176, 177, 179~181, 311
 유일당상해촉성회 唯一黨上海促成會 193
 유일당운동 唯一黨運動 168~170, 174, 186, 189~191, 194
 유일당촉성회 唯一黨促成會 184
 유일독립당 唯一獨立黨 176, 183, 186
 유자명 柳子明 336
 유정근 俞政根 297, 309
 유지연맹 有志聯盟 52
 유진식 俞鎭植 346
 유택수 柳澤秀 338
 유현 劉賢 291, 292, 298
 유호청년대회 留滬靑年大會 152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 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 190
 육군주만참의부 陸軍駐滿參議部 269
 윤경천 尹擎天 208, 242
 윤기섭 尹琦燮 137, 141, 145, 147, 149, 150, 157
 윤봉길 尹奉吉 3, 9, 10, 12, 345, 346, 349
 윤세주 尹世胄 350
 윤치호 尹致昊 110
 윤해 尹海 116, 153, 158, 160, 279
 〈은행령〉 〈銀行令〉 91, 92
 을사5적 乙巳五賊 323
 〈을사늑약〉 〈乙巳勒約〉 317
 의군부 義軍府 223, 337
 의민단 義民團 200, 223
 의병전쟁 義兵戰爭 5
 의성단 義成團 200, 282, 338
 의열단 義烈團 3, 181~184, 191, 193, 325, 332~335, 343, 353
 〈의열단선언〉 〈義烈團宣言〉 182
 의열투쟁 義烈鬪爭 6~9, 13, 318, 321~323, 326, 329, 332, 340, 350~355
 《의열투쟁사》 《義烈鬪爭史》 8
 의용단 義勇團 326, 331
 이갑성 李甲成 110
 이강훈 李康勳 348
 이경일 李京日 337
 이관수 李寬洙 187, 192
 이관용 李灌鎔 125
 이관일 李貫一 304
 이광 李光 118
 이광민 李光民 304
 이광수 李光洙 2, 111, 117, 118, 147, 170
 이교성 李敎成 230
 이교원 李敎元 313
 이규갑 李奎甲 108, 111, 112, 116, 117, 120, 123
 이규동 李圭東 349
 이규홍 李圭洪 180
 이근수 李根洙 329
 이기덕 李基德 312
 이기동 李紀東 50
 이기환 李箕煥 336
 이달 李達 349

- 이당공작 以黨工作 12, 176
이당치국 以黨治國 168, 176, 178, 180, 186
이덕삼 李德三 339
이덕주 李德柱 9, 346
이도 李道 304
이동녕 李東寧 118, 128, 129, 147, 148, 184, 194, 319, 323, 336
이동백 李東白 209
이동휘 李東輝 6, 11, 115, 119, 121, 124, 134~137, 139~141, 143, 147, 171, 249, 252, 330
이만형 李萬馨 260
이민달 李敏達 194
이민홍 李敏洪 109
이민화 李敏華 230
이범석 李範奭 202, 208, 226, 230, 251
이범윤 李範允 205, 214
이병주 李秉周 151
이병채 李秉埰 205
이병학 李炳學 52
이봉수 李鳳洙 112, 116, 117, 120
이봉창 李奉昌 3, 9, 12, 344, 346
이상룡 李相龍 12, 175, 201, 207, 280
이상재 李商在 147, 148
이석 李錫 339
이세영 李世榮 208
이수봉 李秀鳳 339
이수흥 李壽興 338
이승만 李承晩 11, 111, 115, 121, 124, 126, 128, 134, 141, 145, 146, 148, 150, 151, 155, 156, 166, 169, 175, 242
이승훈 李昇薰 110
이시영 李始榮 118, 147, 148, 155, 319, 323, 330, 333
이영백 李英伯 292
이영희 李永熙 312
이완용 李完用 46, 146
이용 李鏞 6, 139, 252, 253
이용로 李容魯 349
이용준 李容俊 348
이원보 李元甫 325
이유필 李裕弼 149, 152, 174
이을 李乙 205
이의태 李義太 304
이인영 李寅榮 53
이인홍 李仁洪 336
이장녕 李章寧 202, 242, 280~282
이재명 李在明 317
이종암 李鐘岩 333
이죽파 李竹坡 278
이지용 李址鎔 53
이진룡 李鎭龍 200
이진무 李振武 290, 331, 338
이진산 李震山 141, 155, 158
이진호 李軫浩 48, 49
이철 李鐵 109
이청천 李青天 6, 338
이춘화 李春和 277
이태길 李泰杰 209
이태화 李泰華 348
이필규 李駟珪 150, 151
이한웅 李漢應 8
이화일 李化日 218
이회영 李會榮 336
〈인민청원서〉 〈人民請願書〉 149
인천무진 仁川無盡 98
일대혁명당 一大革命黨 176
일본 독점자본 日本 獨占資本 70
일시동인 一視同仁 49
일진회 一進會 46, 51, 170
임도준 任度準 202
임병무 林炳武 313
〈임시거류민단체〉 〈臨時居留民團制〉 128
임시고려군정의회 臨時高麗軍政議會 253
임시교통국 臨時交通局 130, 132
임시교통사무국 臨時交通事務局 138
〈임시연통제〉 〈臨時聯通制〉 128
임시의정원 臨時議政院 120~123,

125, 136, 141, 150~152, 154, 156, 157,
159, 160, 162, 163, 180
임시정부 臨時政府 11~14, 107, 109,
118, 120~123, 125, 128, 130~138, 140,
142, 148, 150, 155, 159, 160, 164~169,
171, 174, 175~177, 179~181, 191, 194,
201, 207, 209~211, 214, 232, 233, 235,
238, 242, 247, 271
〈임시정부선포문〉 〈臨時政府宣布文〉
113, 114
〈임시지방교통사무장정〉 〈臨時地方交通
事務章程〉 130
〈임시지방연통제〉 〈臨時地方聯通制〉
129
임정법통론 臨政法統論 165, 167

[ㄷ]

자유시사(참)변 自由市事(慘)變 6,
248, 249, 254~256
자치론 自治論 14, 33, 170
자치운동 自治運動 2
자치청원운동 自治請願運動 52
작탄대 炸彈隊 321
잡륜자치회 卡倫自治會 281
장강호 長江好 221
장개석 蔣介石 346
장건상 張健相 184, 186
장덕진 張德震 331
장도정 張道政 123, 252
장봉 張鵬 120, 146, 149, 150, 155
장성산 張聖山 186
장암동참변 獐巖洞慘變 245
장영환 張英煥 339
장용희 張容熙 342
장인환 張仁煥 8, 317
장작림 張作霖 220
장종철 張宗哲 293
장직상 張稷相 50
장진홍 張鎭弘 342

장채극 張彩極 109, 110, 114
장헌식 張憲植 49
장흥왕 張興旺 272
재중(국)한인청년동맹 在中(國)韓人青年
同盟 189, 191, 307
적기단 赤旗團 7, 335
전당업 典當業 97
전당포 典當舖 99
전덕원 全德元 200, 208, 209, 266, 267
전만통일회 全滿統一會 282
전만통일회주비회 全滿統一會籌備會
280, 283
〈전매령〉 〈專賣令〉 75
전명운 田明雲 317
전민족유일당촉성회(의) 全民族唯一黨促
成會(議) 193, 305, 310
전민족유일당협의회 全民族唯一黨協議
會 305, 310
〈전민족적독립당결성의 선언문〉 〈全民
族的獨立黨結成的 宣言文〉 180
전옥결 全玉玦 109
《전위》 《前衛》 307
정기선 鄭基善 246
정기예금 定期預金 89
정미업 精米業 77
정백 鄭栢 180, 181
정병조 鄭丙朝 52
정부패괴운동 政府敗潰運動 145
정신 鄭信 291, 292, 297, 298
정신품행강연단 精神品行講演團 266
〈정우회선언〉 〈正友會宣言〉 179,
187
정원 鄭遠 189
정원택 鄭元澤 319
정의단 正義團 201
정의부 正義府 7, 282, 283, 285, 287,
289, 291, 295, 296, 303, 307~313, 338
《정의부공보》 《正義府公報》 284
정인교 鄭寅敎 158
정진현 鄭晉鉉 132

- 정태희 鄭泰熙 187, 192, 194
 정필화 鄭弼和 339
 정학빈 鄭學彬 184
 정한경 鄭漢景 146
 정화암 鄭華岩 349
 정훈모 鄭薰謨 32
 제1차 세계대전 第一次 世界大戰 2,
 55, 56, 60, 76, 103, 105, 126, 213
 제국주의 帝國主義 42, 77
 제국주의전쟁 帝國主義戰爭 103
 제국철도협회 帝國鐵道協會 59
 제일은행 第一銀行 89
 조국광복회 祖國光復會 5
 조동식 趙東植 242
 조동호 趙東祐 172
 조맹선 趙孟善 208, 210
 조명하 趙明河 342
 조명희 趙明熙 6
 조문기 趙文起 352
 조병세 趙秉世 8
 조병준 趙秉準 200, 208, 209
 조봉암 曹奉岩 172, 181, 194
 조상갑 趙尙甲 205
 조상섭 趙尙燮 138, 150, 152, 174
 조선경제회 朝鮮經濟會 54
 조선공산당 朝鮮共產黨 5, 172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朝鮮共產黨 滿洲
 總局 7, 189, 303, 306, 313
 〈조선교육령〉 〈朝鮮教育令〉 4
 조선국민회 朝鮮國民會 6, 8
 조선금융제도조사회 朝鮮金融制度調查
 會 84
 조선독립군정사 朝鮮獨立軍政司 325
 조선면화주식회사 朝鮮棉花株式會社
 70
 〈조선무진업령〉 〈朝鮮無盡業令〉 97,
 98
 조선민족해방협동당 朝鮮民族解放協
 同黨 351
 조선방직주식회사 朝鮮紡織株式會社 70
 조선사편수회 朝鮮史編修會 5
 조선사학회 朝鮮史學會 5
 〈조선산업에 관한 계획요항〉 〈朝鮮產
 業에 關한 計劃要項〉 59
 〈조선산업에 관한 일반 방침〉 〈朝鮮產
 業에 關한 一般 方針〉 59
 조선산업조사위원회 朝鮮產業調查委員
 會 57, 59, 60
 조선상업은행 朝鮮商業銀行 89, 92,
 93
 조선생사주식회사 朝鮮生絲株式會社
 70
 조선세제조사위원회 朝鮮稅制調查委員
 會 80
 조선소작인상조회 朝鮮小作人相助會 54
 조선식산은행 朝鮮殖產銀行 83, 336
 조선은행 朝鮮銀行 83, 88, 90
 조선의용군 朝鮮義勇軍 5
 조선인민회 朝鮮人民會 52, 338
 조선인산업대회 朝鮮人產業大會 57,
 58
 《조선일보》 《朝鮮日報》 313
 조선재정조사위원회 朝鮮財政調查委員
 會 80
 조선철도협회 朝鮮鐵道協會 59
 조선총독 朝鮮總督 24, 46, 277
 조선총독부 朝鮮總督府 4, 17, 18, 27~
 29, 31~33, 37, 38, 42~45, 47~51, 53, 61,
 80, 81, 85, 93, 170, 220, 222
 〈조선총독부 경찰조전〉 〈朝鮮總督府
 警察操典〉 27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朝鮮土地改良株
 式會社 61, 62
 조선혁명군 朝鮮革命軍 7
 조선혁명당 朝鮮革命黨 7, 12, 301
 〈조선혁명선언〉 〈朝鮮革命宣言〉 8,
 9, 170, 334
 조성환 曹成煥 118, 242, 291, 292
 조소앙 趙素昂 118, 127, 155, 160, 184,
 186, 319

조안득 曹安得 351
 조완구 趙琬九 118, 120, 130, 145, 147,
 149, 157, 194
 좌우합작(운동) 左右合作(運動) 168,
 181
 주건 朱建 205
 〈주세령〉 〈酒稅令〉 75
 주의자동맹 主義者同盟 172
 주익 朱翼 108
 주주총회 株主總會 93
 주혁 朱赫 293
 중광단 重光團 201
 중국본부한인청년동맹 中國本部韓人青
 年同盟 187
 중앙은행 中央銀行 83
 〈중용과 철저〉 〈中庸과 徹底〉 2
 중일전쟁 中日戰爭 351
 중추원 中樞院 53
 중한호조사 中韓互助社 134
 지불준비제도 支拂準備制度 85
 지청천 池青天 201, 207, 208, 240, 280,
 304, 306
 진명단 盡命團 325
 진충단 盡忠團 325

【次】

차도선 車道善 200
 참의 參議 308
 참의부 參議府 7, 269~274, 276, 278,
 279, 294, 296, 306, 308~313
 참정권 參政權 170
 창조파 創造派 11, 143, 153, 154, 156
 ~161, 164~166, 173, 178, 280
 채군선 蔡君仙 272
 채찬 蔡燦 268, 269, 277
 천도교 天道敎 108, 203
 천마(산)대 天摩(山)隊 200, 326
 천세헌 千世憲 149
 천수평 전투 泉水坪戰鬪 232, 239

《천진대공보》 《天津大公報》 110
 청산리대첩(전쟁) 靑山里大捷(戰爭) 2,
 3, 11, 220, 224, 226~228, 232, 235, 237,
 239~242, 251, 259, 337
 청일전쟁 淸日戰爭 199
 총관사무소 總管事務所 263
 총독관방 總督官房 25
 총독부 總督府 24, 26, 28, 34, 38, 41,
 43, 47, 56, 57, 59, 61, 73, 79, 83, 85, 88, 91
 최고려 崔高麗 250, 252, 254
 崔니콜라 250
 최린 崔麟 2
 최병선 崔炳善 339
 최병호 崔炳鎬 337
 최봉관 崔鳳官 194
 최상덕 崔上德 109
 최석순 崔碩淳 279
 최수봉 崔壽鳳 325
 최시흥 崔時興 210, 326
 최양옥 崔養玉 350
 최우익 崔于翼 205
 최원 崔圓 186
 최재경 崔在京 312
 최재형 崔在亨 247
 최정규 崔晶圭 265
 최정호 崔正浩 292
 최정화 崔精化 203
 최지문 崔芝文 312
 최창식 崔昌植 111, 174, 194
 최진동 崔振東 203, 215, 223, 226, 227,
 241
 최추해 崔秋海 186
 최태여 崔太汝 203
 최호 崔灝 291, 292, 297, 298
 최흥식 崔興植 9
 〈치안유지법〉 〈治安維持法〉 5, 32
 〈친일조선인 유력자의 이용 및 보호〉
 〈親日朝鮮人 有力者의 利用 및 保護〉
 45
 친일파 親日派 43~46, 51, 54, 290,

337, 341
7가살 七可殺 320, 353

[ㄱ]

코민테른 Comintern 7, 161, 170, 173,
192, 256
클레망소 G. Clemenseau 125

[ㄴ]

탐정대 探偵隊 326
태극단 太極團 211
태평양회의 太平洋會議 148
테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29
토미시마 미치마사 副島道正 33
토지개량사업 土地改良事業 64, 88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查事業 3, 55,
170
통동병원 通東病院 273
통의부 統義府 263, 265~268, 270,
279, 283, 335
특수은행 特殊銀行 83, 85, 90

[ㄷ]

파리강화회의 Paris講和會議 11, 104,
108, 111, 125~127, 132, 134
편의대 便衣隊 297
편의유격조 便衣遊擊組 321
편조물 編造物 72
평북독판부 平北督辦部 209, 210, 261,
327
평양은행 平壤銀行 89
표영준 表永俊 331
피치 George A. Fitch 111

[ㅎ]

하세가와 요시미치 長谷川好道 29

〈학교비령〉 〈學校費令〉 35
학우회 學友會 281, 282
한국광복군 韓國光復軍 5
한국독립군 韓國獨立軍 7
한국독립당 韓國獨立黨 7, 12, 350
〈한국독립당 조직안〉 〈韓國獨立黨 組
織案〉 173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 韓國獨立
黨管內促成會聯合會 185
〈한국민족독립결정서〉 〈韓國民族獨立
決定書〉 127
한국혁명당총동맹 韓國革命黨總同盟
348
한권웅 韓權雄 277
한근원 韓根源 230
한남수 韓南洙 108, 116, 117, 120
한민회 韓民會 324
한상룡 韓相龍 48, 50
한성오 韓聖五 108
한성은행 漢城銀行 89, 93
한성정부 漢城政府 109, 110, 112, 114,
115, 117, 120~123, 165, 320
한성정부 봉대론 漢城政府 奉戴論
123
한용 韓鎔 192
한위건 韓偉健 191, 123
한인과 韓人科 273
한인군사위원회 韓人軍事委員會 253,
254
한인사회당 韓人社會黨 135, 249
한인소년병학교 韓人少年兵學校 280
한인애국단 韓人愛國團 9, 12, 343,
346, 355
〈한인취체규칙〉 〈韓人取締規則〉 275
한일은행 韓一銀行 89
한일합방(병) 韓日合邦(併) 18, 19, 32,
48, 105, 107, 129
한족노동당 韓族勞動黨 12, 301
《한족신보》 《韓族新報》 207
한족회 韓族會 143, 158, 200

- 한진교 韓鎭敎 175
 한철 韓哲 189
 한형권 韓馨權 135
 한훈 韓焄 330
 함성 咸聲 186
 함익순 咸益淳 272
 항일구국연맹 抗日救國聯盟 348
 행정강습소 行政講習所 34
 향약계 鄉約契 208
 허빈 許斌 292
 허열추 許悅秋 186
 허운 許雲 175
 헌병경찰(제도) 憲兵警察(制度) 18~
 20, 28
 헌병보조원 憲兵補助員 22
 혁명적 우파세력 革命的 右派勢力
 173
 혁신의회 革新議會 311
 현석칠 玄錫七 109
 현순 玄楯 110, 111, 117, 118, 122
 현정건 玄鼎健 181, 186
 현정경 玄正卿 267, 289, 312
 현천묵 玄天默 202, 228, 292
 혈맹단 血盟團 325
 혈성단 血誠團 211
 협동조합운동 協同組合運動 3
 혜중학교 惠中學校 193
 〈호구조사규정〉 〈戶口調查規程〉 28
 호남은행 湖南銀行 89
 호법정부 護法政府 134
 호서은행 湖西銀行 89
 홍남표 洪南杓 180, 181, 184, 194
 홍도 洪濤 116, 117, 120, 123
 홍면희 洪冕熹 112, 116, 117, 120, 123
 홍범도 洪範圖 6, 139, 200, 203, 205,
 212, 214, 215, 218, 219, 223~227, 231,
 233~236, 240~242, 254
 홍상표 洪相杓 224
 홍석호 洪碩浩 271
 홍식 洪植 210
 홍진 洪震 12, 160, 175, 176, 179, 180,
 184, 186, 299, 304
 홍충희 洪忠熹 226
 화요파(회) 火曜派(會) 181, 188~192
 화학공업 化學工業 72
 화흥중학 化興中學 288
 황경섭 黃景燮 247
 황기룡 黃起龍 312
 황기환 黃玘煥 125
 황병길 黃炳吉 214
 황상규 黃尙奎 325
 황영희 黃永熙 133
 황옥 黃鈺 334
 황일초 黃一樵 296
 황포군관학교 黃埔軍官學校 336
 황혁 黃赫 298
 황훈 黃勳 175, 181, 194
 〈회사령〉 〈會社令〉 50, 55, 56, 67, 75
 후쿠오카농법 福岡農法 63
 훈춘사건 琿春事件 221, 222
 훈춘한민회(의) 琿春韓民會(議) 206,
 240~242
 흑색공포단 黑色恐怖團 348
 흥사단 興士團 135
 흥실업사 興實業社 289

집필자

개요	조동걸
----------	-----

I. 문화정치와 수탈의 강화

1. 문화정치의 실상	윤해동
2. 수탈체제의 강화	배성준

I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 임시정부의 수립과 초기 활동	이현주
2.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윤대원
3. 임시정부와 유일당운동	김희곤

III. 독립군의 편성과 독립전쟁

1. 독립군의 편성과 국내진입작전	박민영
2. 봉오동승첩과 청산리대첩	박민영
3. 경신참변과 자유시사변	박민영

IV. 독립군의 재편과 통합운동

1. 통의부의 결성과 활동 채영국
2. 3부의 성립과 활동 채영국
3. 재만 독립운동단체의 민족유일당운동 채영국

V. 의열투쟁의 전개

1. 의열투쟁의 의미맥락 김영범
2. 의열투쟁 본격화의 배경과 계기 김영범
3. 3·1운동 직후와 1920년대의 의열투쟁 김영범
4. 1930년대와 일제말의 의열투쟁 김영범
5. 일제 강점기 의열투쟁의 특징과 역사적 의의 김영범

한 국 사

48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24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2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